

이웃에게 행복을, 내 마음에 보람을

2022년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보고서



사회복지법인 일정사회복지재단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목차

1. 추진배경	5
가.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 운영의 필요성	5
나. 강릉시 인구 및 복지수요 관련 통계	6
2.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	10
가. 주요연혁 및 조직구성	10
나. 2022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사업	11
3. 조사대상	13
가. 모집단	13
나. 표본추출방법	14
다. 조사방법	14
4. 조사개요	14
가. 조사명	14
나. 조사목적	14
다. 조사도구	14
라. 자료분석	14
마. 조사기간	15
바. 조사항목	15
5. 복지욕구 현황조사 결과	16
가. 응답자 일반특성	16
나.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인식 및 이용 경험 사항	18
다. 지역주민 복지욕구 현황	28
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욕구분석 결과	49
6. 결론	53
가. 요약 및 제언	53
나. 차년도 사업계획 방향성	59

표 목차

〈표1〉 인구수·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 추이	6
〈표2〉 2020년 기준 21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6
〈표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7
〈표4〉 2020년 기준 21개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7
〈표5〉 읍·면·동별 1인 가구 추이	8
〈표6〉 노인인구 비율 통계	8
〈표7〉 독거노인가구 비율 추이	8
〈표8〉 읍·면·동별 장애인 등록현황 추이	9
〈표9〉 20세 이상 강릉시 지역주민	13
〈표10〉 응답자의 개인적 사항	17
〈표11〉 성별·연령대별 복지관 인식여부	18
〈표12〉 거주동네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인식여부	19
〈표13〉 복지관 인식경로와 연령대 다중반응 교차분석	20
〈표14〉 지역주민의 향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역할 인식유형	21
〈표15〉 성별·연령대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여부	22
〈표16〉 이용여부와 거주동네 간의 교차분석	23
〈표17〉 성별·연령대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서비스 유형	25
〈표18〉 성별·연령대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이유	26
〈표19〉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 간 불편사항	27
〈표20〉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에 따른 복지서비스 욕구	28

표 목차

〈표21〉 중·고등학생 자녀에 따른 복지서비스 욕구	29
〈표22〉 성별·연령대별 필요한 복지지원 유형	31
〈표23〉 성별·연령대별 필요한 복지프로그램 유형	33
〈표24〉 성별·연령대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 이용시간	34
〈표25〉 주민의 지역사회(마을) 문제 인식	36
〈표26〉 거주동네별 주민의 지역사회(마을) 문제 인식	37
〈표27〉 성별·연령대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역할	39
〈표28〉 성별·연령대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사업 참여	40
〈표29〉 주민복지 강화 사업 참여 여부와 거주동네 간의 교차분석	41
〈표30〉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호 활동 유형	42
〈표31〉 거주동네별 도움이 필요한 이웃 목격 여부	44
〈표32〉 성별·연령대별 이웃에게 도움을 준 유형	46
〈표33〉 이웃에게 도움을 준 유형과 거주동네 다중반응 교차분석	47
〈표34〉 성별·연령대별 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주민들의 생각	48
〈표35〉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기본사항	49
〈표36〉 자원봉사활동 관련 욕구	50
〈표37〉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 기본사항	51
〈표38〉 후원 관련 욕구1	51
〈표39〉 후원 관련 욕구2	52
〈표40〉 차년도 사업계획 방향성	59

2022년 지역주민 복지욕구 현황조사 결과

1. 추진배경

가.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 운영의 필요성

- 1)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관련 운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와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등의 사회복지관 운영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여야 함.
- 2) 또한,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및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¹⁾.
- 3) 본 조사에서 파악하는 욕구(needs)란 단순한 요구 상태(wants)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함²⁾.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두 개념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하였음.
- 4) 이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문제 및 욕구의 특성을 종합하여 한정된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사업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³⁾. 즉, 본 기초 자료를 통해 개입의 우선순위와 개입이 필요 대상 집단 설정, 복지서비스 수요 측정과 향후 전망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⁴⁾.

1) 보건복지부(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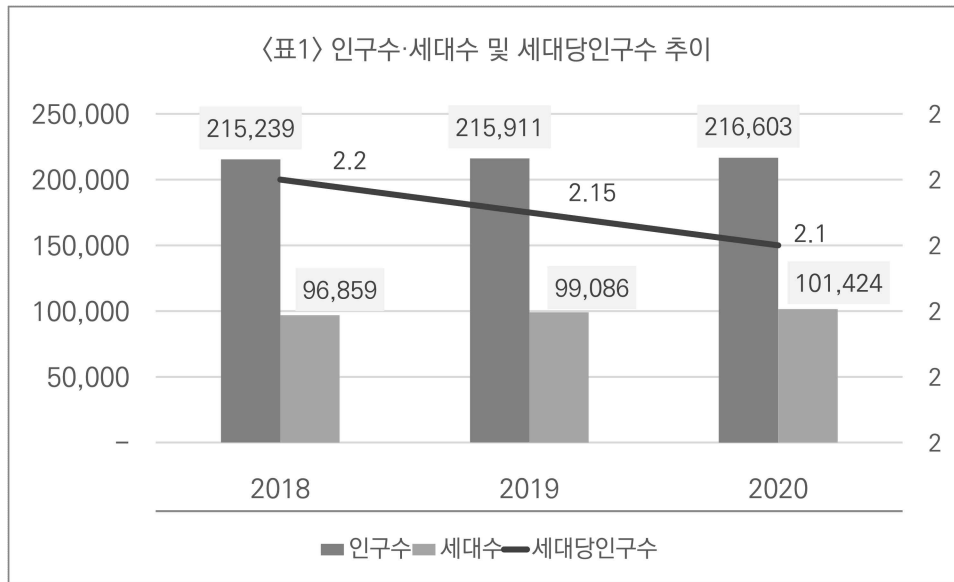
2) 김영중(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학지사. p.544

3) 김영중(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학지사. p.543

4) 이소영.(201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포럼」. 208.

나. 강릉시 인구 및 복지수요 관련 통계

1) 인구수·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 추이 ※출처: 강릉시 통계연보(2019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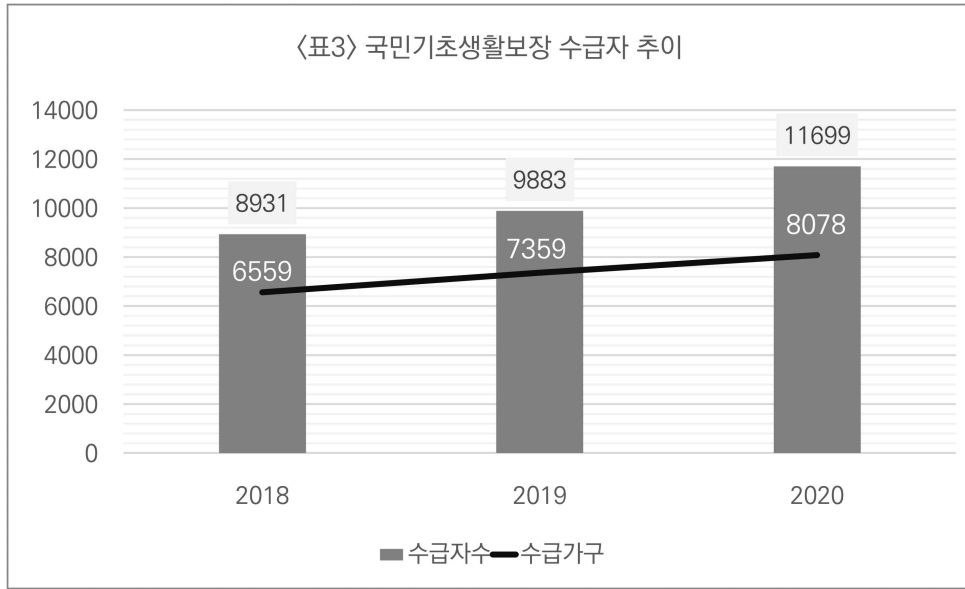


2)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통계

〈표2〉 2020년 기준 21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출처: 강릉시 통계연보(2021년)

연번	지역명	세대수	비율(%)	세대당 인구	인구수(명)	비율(%)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인구비율 (%)
1	주문진읍	9,001	8.9	1.80	16,542	7.7	5,233	31.6
2	성산면	1,692	1.7	2.03	3,450	1.6	1,114	32.3
3	왕산면	906	0.9	1.75	1,601	0.7	663	41.4
4	구정면	1,954	1.9	2.11	4,155	1.9	1,221	29.4
5	강동면	2,291	2.3	1.88	4,392	2.0	1,561	35.5
6	옥계면	1,943	1.9	1.83	3,600	1.7	1,300	36.1
7	사천면	2,338	2.3	1.94	4,594	2.	1,339	29.1
8	연곡면	3,302	3.3	2.00	6,640	3.1	1,768	26.6
9	홍제동	7,081	7.0	2.18	15,504	7.2	2,466	15.9
10	중앙동	2,925	2.9	1.72	5,105	2.4	1,573	30.8
11	옥천동	1,988	2.0	1.71	3,450	1.6	1,148	33.3
12	교1동	11,517	11.4	2.27	26,386	12.2	4,133	15.7
13	교2동	3,889	3.8	2.03	8,015	3.7	1,894	23.6
14	포남1동	5,351	5.3	1.97	10,596	4.9	2,538	24.0
15	포남2동	6,483	6.4	2.01	13,122	6.1	2,646	20.2
16	초당동	2,356	2.3	2.06	4,891	2.3	897	18.3
17	송정동	4,125	4.1	2.44	10,140	4.7	1,480	14.6
18	내곡동	7,707	7.6	2.17	17,107	7.9	2,459	14.4
19	강남동	8,306	8.2	2.18	18,255	8.5	4,554	24.9
20	성덕동	11,968	11.8	2.40	28,854	13.4	4,106	14.2
21	경포동	4,301	4.2	2.07	9,204	4.3	1,391	15.1
전체		101,424	100	2.10	215,603	100.0	45,484	21.1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출처: 강릉시 통계연보(2021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계

〈표4〉 2020년 기준 21개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출처: 강릉시 통계연보(2021년)

연번	지역명	수급자수(명)	수급자비율(%)	수급가구	수급가구비율(%)
1	주문진읍	1,505	12.9	1,155	14.3
2	성산면	144	1.2	88	1.1
3	왕산면	48	0.4	37	0.5
4	구정면	148	1.3	52	0.6
5	강동면	288	2.5	140	1.7
6	옥계면	229	2.0	176	2.2
7	사천면	245	2.1	115	1.4
8	연곡면	330	2.8	237	2.9
9	홍제동	948	8.1	726	9.0
10	중앙동	433	3.7	346	4.3
11	옥천동	368	3.1	283	3.5
12	교1동	810	6.9	509	6.3
13	교2동	474	4.1	364	4.5
14	포남1동	683	5.8	461	5.7
15	포남2동	945	8.1	666	8.2
16	초당동	157	1.3	123	1.5
17	송정동	360	3.1	210	2.6
18	내곡동	774	6.6	479	5.9
19	강남동	990	8.5	605	7.5
20	성덕동	1,593	13.6	1,163	14.4
21	경포동	227	1.9	143	1.8
전체		11,699	100	8,078	100

5) 강릉시 읍·면·동별 1인 가구 추이

〈표5〉 읍·면·동별 1인 가구 추이 ※출처: 강릉시주민등록인구통계(2019년~2021년)

연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전체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전체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1	주문진읍	8,903	4,547	51.1	9,001	4,664	51.8	9,243	4,717	51.0
2	성산면	1,677	702	41.9	1,692	711	42.0	1,722	739	42.9
3	왕산면	908	430	47.4	906	446	49.2	911	455	49.9
4	구정면	1,896	759	40.0	1,954	787	40.3	2,035	831	40.8
5	강동면	2,306	1,149	49.8	2,291	1,158	50.5	2,266	1,135	50.1
6	옥계면	1,930	917	47.5	1,943	958	49.3	1,935	949	49.0
7	사천면	2,273	1,028	45.2	2,338	1,072	45.9	2,417	1,117	46.2
8	연곡면	3,234	1,374	42.5	3,302	1,474	44.6	3,282	1,519	46.3
9	흥제동	7,017	2,841	40.5	7,081	2,904	41.0	7,089	2,990	42.2
10	중앙동	2,905	1,616	55.6	2,925	1,701	58.2	2,814	1,649	58.6
11	옥천동	1,977	1,126	57.0	1,988	1,141	57.4	2,023	1,195	59.1
12	교1동	11,152	3,819	34.2	11,517	4,255	36.9	11,714	4,562	38.9
13	교2동	3,739	1,489	39.8	3,889	1,696	43.6	3,860	1,701	44.1
14	포남1동	5,218	2,212	42.4	5,351	2,423	45.3	5,411	2,526	46.7
15	포남2동	6,379	2,654	41.6	6,483	2,928	45.2	6,557	3,083	47.0
16	초당동	2,336	968	41.4	2,356	1,022	43.4	2,379	1,079	45.4
17	송정동	3,233	955	29.5	4,125	1,113	27.0	4,174	1,153	27.6
18	내곡동	7,909	3,361	42.5	7,707	3,175	41.2	7,666	3,145	41.0
19	강남동	8,269	2,991	36.2	8,306	3,138	37.8	8,314	3,270	39.3
20	성덕동	11,750	3,727	31.7	11,968	3,991	33.3	11,957	4,099	34.3
21	경포동	4,075	1,960	48.1	4,301	2,026	47.1	5,110	2,159	42.3
전체		99,086	40,625	41.0	101,424	42,783	42.2	102,879	44,073	42.8

6)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가구 비율 통계

〈표6〉 노인인구 비율 통계 ※출처: 강릉시 통계연보(2021년)

2019년			2019년			2020년		
노인인구	전체인구	고령인구비율	노인인구	전체인구	고령인구비율	노인인구	전체인구	고령인구비율
41,214	215239	19.1	43,113	215911	20.0	45,484	215603	21.1

〈표7〉 독거노인가구 비율 추이 ※출처: 통계청(독거노인가구비율/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701)

2019년			2020년			2021년		
독거노인 가구비율	65세이상 1인가구	전체 일반가구	독거노인 가구비율	65세이상 1인가구	전체 일반가구	독거노인 가구비율	65세이상 1인가구	전체 일반가구
10.0	9,188	92,093	10.2	9,956	98,032	10.9	10,813	99,105

※전체 일반가구는 65세 이상 일반가구가 아닌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가구임.

7) 장애인 등록현황

〈표8〉 읍·면·동별 장애인 등록현황 추이 ※출처: 강릉시 통계연보(2020년)

연번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심한	심하지 않은	전체	심한	심하지 않은	전체	심한	심하지 않은
1	주문진읍	1,578	604	974	1,563	575	988	1,575	593	982
2	성산면	284	99	185	279	94	185	285	97	188
3	왕산면	147	52	95	148	51	97	151	47	104
4	구정면	330	139	191	339	143	196	337	139	198
5	강동면	515	245	270	495	223	272	489	219	270
6	옥계면	439	171	268	428	164	264	421	161	260
7	사천면	460	245	215	448	234	214	441	233	208
8	연곡면	533	199	334	536	204	332	532	190	342
9	홍제동	574	212	362	804	321	483	819	337	482
10	중앙동	390	145	245	388	146	242	366	138	228
11	옥천동	275	106	169	272	106	166	270	103	167
12	교1동	1,176	441	735	1,152	424	728	1,144	434	710
13	교2동	491	194	297	472	179	293	462	179	283
14	포남1동	724	299	425	721	294	427	699	278	421
15	포남2동	814	331	483	789	304	485	803	318	485
16	초당동	260	106	154	259	102	157	250	100	150
17	송정동	387	154	233	380	148	232	423	163	260
18	내곡동	735	328	407	775	334	441	818	343	475
19	강남동	1,288	496	792	1,277	482	795	1,283	473	810
20	성덕동	1,585	698	887	1,505	662	843	1,536	659	877
21	경포동	308	112	196	343	123	220	360	126	234
전체		13,293	5,376	7,917	13,373	5,313	8,060	13,464	5,330	8,134

※장애등급 폐지 전 2017년의 경우 장애등급 1~3급은 심한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정리함.

※2021년 강릉시 통계연보에서는 장애인 등록현황이 취합되지 않아 2017~2019년 기준으로 정리함.

2.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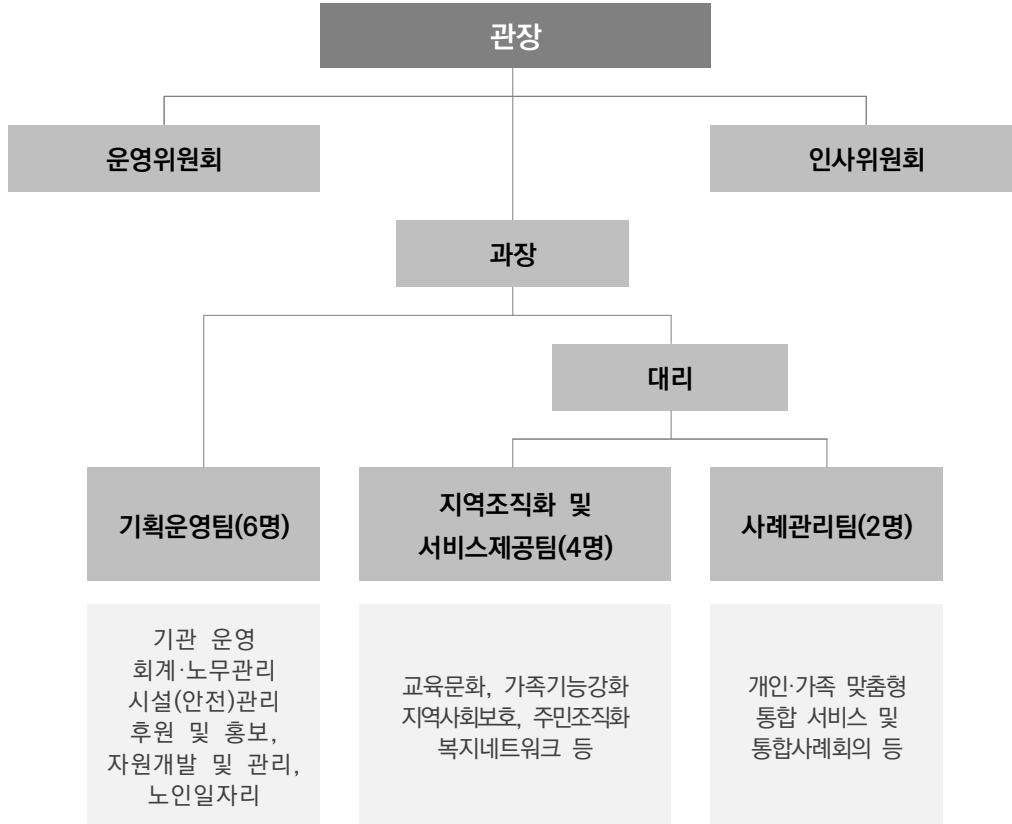
가.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연혁 및 조직구성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1월 임대단지 내 복지관으로 개관하여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강릉시 전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강릉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구 및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2021년 1월, 월정사복지재단으로 운영법인 변경).

1) 주요연혁

연도	내용
1995. 01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11. 07	제2대 김후승(무승스님) 관장 취임
2013. 09	제3대 김선기 관장 취임
2018. 07	제4대 류제완 관장 취임
2021. 01	운영법인 변경(월정사 복지재단)
2021. 01	제5대 안영임(지명스님) 관장 취임
2021. 03	제3의 청춘 주식회사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
2021. 04	영구임대 행복성장 4UP 프로젝트 시작
2021. 04	강원도강릉의료원 업무협약
2021. 04	강원남부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업무협약
2021. 04	강릉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
2021. 04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업무협약
2021. 04	강릉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협약
2021. 05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분소(미디어촌 5단지) 개소식
2021. 07	강릉시, 강릉문화원 소외 없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2021. 07	1촌 돌봄카페(입암동) 개소
2021. 10	건강보험 강남동 마을관리소 약정서 체결
2021. 11	제6대 관장 김하남(유엄스님) 취임
2021. 12	건강보험 강남동 마을관리소 개소
2022. 03	늘해랑 돌봄 빨래방 개소

2) 조직구성



나. 2022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사업

대분류	중분류	주요 사업내용
사례관리	사례관리 프로세스	접수 및 사례발굴-초기상담-판정회의-사정-서비스 개입 계획-내부·통합사례회의-점검 및 평가-종결 및 사후관리
	경제적 지원	① 가정결연후원사업 ② 비지정 결연후원사업(개인/단체) ③ 공모사업(민간복지재단 자원 발굴 및 연계)
	위기가정 지원	판정회의·사례회의 통해 사례관리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발굴 및 접수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에게 가구 수선 및 청소를 지원
서비스제공	교육문화	① 에코브릿지(친환경용품 만들기) ② 화사한 인생(원예 치유프로그램) ③ 우리동네 뜨개방(지역주민 뜨개모임) ④ 마카모예(미술/노래교실) ⑤ 디지털탐험대(스마트폰 및 IT활용 교육) ⑥ 성인문해학교(비문해성인 한글·영어 교육)
	가족기능강화	① 가족역량강화교육(양육 및 과업교육) ② 여름방학 프로그램(초등학생) ③ 청소년 스키캠프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지역사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겨울철 난방지원(유류 및 연탄 지원) ② 겨울철 김장김치 지원(지역사회 후원) ③ 명절 정서지원(명절맞이 다양한 정서지원) ④ 어버이날 행사(어버이날 기념행사 진행) ⑤ 이·미용 서비스 ⑥ 저소득 재가노인 부식배달 ⑦ 아동·청소년 반찬나눔(이마트 사랑의 도시락) ⑧ 보송보송 빨래방 ⑨ 장수식당(노인무료급식소)
지역조직화	지역주민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문화·여가 행사) ② 주민모임 지원(주민모임 공간 및 비용지원) ③ 마을변화 프로젝트(원도심 지역 인식변화 활동) ④ 정든마을 주민교육(관계증진, 취미, 역량강화, 안전) ⑤ 프로그램 전시회(프로그램 결과물 공유) ⑥ 감자썩 그린팜(공유 텃밭 가꾸기)
	복지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합돌봄 실무자 모임(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② 지역사회 실태조사(지역주민 복지욕구 파악 및 분석) ③ 서비스이용 만족도 조사 ④ 시설대관(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강화) ⑤ 실습지도(사회복지 전공생에게 실무경험 제공)
	자원개발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원개발 및 자원봉사 관리 ②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지지격려 ③ 송년행사(후원 및 자원봉사 감사행사)
	홍보 및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보고서 발간 ② 소식지 발간 ③ 홍보물 제작 ④ 직원역량강화(직원교육, 간담회, 직원육구조사)

3. 조사대상

가. 모 집 단: 20세 이상 강릉시 지역주민(181,687명)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2021년 8월기준)

〈표9〉	인구수 (명)	비율 (%)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181,687	100	89,376	92,311	24,093	20,782	31,344	36,475	68,993
주문진읍	15,040	8.28	7,246	7,794	1,407	1,210	1,996	2,924	7,503
성산면	3,168	1.74	1,605	1,563	270	200	374	675	1,649
왕산면	1,507	0.83	801	706	78	82	97	295	955
구정면	3,756	2.07	1,892	1,864	322	309	487	723	1,915
강동면	3,871	2.13	2,041	1,830	385	268	393	732	2,093
옥계면	3,207	1.77	1,636	1,571	224	199	299	633	1,852
사천면	4,309	2.37	2,200	2,109	421	400	569	851	2,068
연곡면	5,580	3.07	2,800	2,780	455	481	910	1,071	2,663
읍면지역	40,438	22.26	20,221	20,217	3,562	3,149	5,125	7,904	20,698
홍제동	12,364	6.81	5,984	6,380	1,645	1,888	2,561	2,452	3,818
중앙동	4,301	2.37	2,054	2,247	523	394	568	741	2,075
옥천동	3,076	1.69	1,580	1,496	314	243	404	609	1,506
교1동	21,285	11.72	10,275	11,010	3,586	2,503	4,265	4,527	6,404
교2동	6,789	3.74	3,349	3,440	941	745	972	1,363	2,768
포남1동	9,388	5.17	4,549	4,839	1,268	915	1,388	1,976	3,841
포남2동	11,122	6.12	5,398	5,724	1,556	1,226	1,738	2,293	4,309
초당동	4,045	2.23	1,959	2,086	510	536	668	883	1,448
송정동	8,114	4.47	3,863	4,251	1,084	1,220	1,604	1,662	2,544
내곡동	13,784	7.59	6,904	6,880	2,341	2,003	2,759	2,596	4,085
강남동	15,341	8.44	7,637	7,704	1,873	1,513	2,377	3,041	6,537
성덕동	22,519	12.39	10,959	11,560	3,320	3,051	4,914	4,678	6,556
경포동	9,121	5.02	4,644	4,477	1,570	1,396	2,001	1,750	2,404
동지역	141,249	77.74	69,155	72,094	20,531	17,633	26,219	28,571	48,295

나. 표본추출방법

구분	대상	기타사항
편의 표집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읍면동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조사 진행 시 읍면동 협조
	본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
	강릉시 지역주민	온라인 설문조사 병행

다.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지 배부(필요시 면접조사 병행)

구분	응답인원(회수현황)	유효표본
온라인응답	312명	312명(100%)
현장응답	750명	733명(97.7%)
계	1,062명	1,045명(98.0%)

4. 조사개요

가. 조 사 명: 2022년 강릉시 지역주민 복지욕구 현황조사

나. 조사목적

- 1) 지역주민의 생활 현황과 복지 욕구의 다각적 파악 및 분석
- 2)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다.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라.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모두 SPSS 2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빈도분석, 다중반응 응답분석 및 주요특성(성별, 연령, 거주동네)에 따른 교차분석을 시행함. 단, 결측값은 분석에서 제외함.

마. 조사기간

구분	일정	내용
TF조직	5. 3.(화)	조사사업 TF 조직
조사설계 및 설문지제작	5. 11.(수)~ 7. 25.(월)	3대기능 영역별 조사주제, 항목, 내용 등 논의, 설문지 초안 작성, 외부 슈퍼비전
조사준비	7. 26.(화)~ 8. 5.(금)	답례품 구입, 설문지 인쇄 및 배부, 조사대상 응답 협조 요청(사업홍보)
조사실시	8. 8.(월)~ 8. 28.(일)	조사 진행(온·오프라인 병행)
자료처리 및 결과분석	9. 5.(월)~ 10. 28.(금)	자료처리 및 결과분석, 평가회의 진행
보고서 작성	11. 1.(화)~ 11. 11.(금)	결과보고서 작성 및 주요 결과사항 요약본 지역사회 공개

바. 조사항목

분류	세부항목
종합사회복지관 인식 및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	복지관 인지여부, 복지관 접근경로, 복지관 이용여부, 보완사항, 이용서비스 유형, 이용이유, 복지관 역할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관한 질문	아동·청소년에 관한 욕구 질문, 연령대별 필요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복지관 이용 희망 시간대, 지역문제 종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역할, 복지관 제안활동 참여 여부, 선호 공동체 사업 종류, 소외이웃 목격여부 및 도움 제공여부, 사각지대 축소 전략
응답자 기본사항	성별, 연령, 현재 거주동네
자원봉사자에 관한 질문	자원봉사 동기, 선호 봉사유형, 봉사자 지원
후원자에 관한 질문	후원참여 동기, 후원금품 사용 분야, 사용보고 희망 수신방법, 후원자 지원

5. 복지욕구 현황조사 결과

가. 응답자 일반특성

1) 개인적 사항

- 가) 조사에 응답한 20세 이상 지역주민 1,045명 중 '남성' 455명(43.5%), '여성' 590명(56.5%)으로 조사되었고,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은 남성이 조사에 더 많이 응답하였고, '동지역'은 여성이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파악됨. '남성'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옥계면' 75.8%이었고, '여성'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초당동' 75.0%로 나타남.
- 나) 응답자 연령은 기술통계 분석 결과 최연소자 21세, 최연장자 97세로 조사되었고, 평균 나이는 55세로 나타남. 교차분석을 위해 연령대별(10년단위)로 코딩을 변경하여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85명(8.1%), '30대' 136명(13.0%), '40대' 109명(10.4%), '50대' 228명(21.8%), '60대' 281명(26.9%), '70대 이상' 206명(19.7%)으로 파악됨.
- 다) 지역별 연령대 구성을 보면, '읍면지역'의 '20대' 비율은 동지역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40대' 비율은 '동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5~60대' 비율은 '읍면지역'이 더 높았고, '70대 이상' 비율은 '동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라) 가장 비율이 높은 '60대'의 경우 '성산면' 48.7%로 가장 높았고, '연곡면' 41.9%, '강동면' 36.8% 순으로 조사됨. 그 외 연령대로 20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송정동' 30.8%이고, 30대 '경포동' 50.0%, 40대 '교1동' 22.2%, 50대 '왕산면' 65.2%, 70대 이상 '성덕동' 41.0%로 나타남. 일반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본 복지관 자원봉사자, 읍면동별 이·통장 집단이 조사에 참여함에 따라 50대 이상의 장년층 비율이 타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됨.
- 마) 응답자 1,045명이 현재 거주하는 동네는 '주문진' 41명(3.9%), '성산면' 39명(3.7%), '왕산면' 23명(2.2%), '구정면' 31명(3.0%), '강동면' 19명(1.8%), '옥계면' 33명(3.2%), '사천면' 24명(2.3%), '연곡면' 31명(3.0%), '홍제동' 69명(6.6%), '중앙동' 34명(3.3%), '옥천동' 22명(2.1%), '교1동' 72명(6.9%), '교2동' 48명(4.6%), '포남1동' 69명(6.6%), '포남2동' 31명(3.0%), '초당동' 20명(1.9%), '송정동' 39명(3.7%), '내곡동' 111명(10.6%), '강남동' 86명(8.2%), '성덕동' 173명(16.6%), '경포동' 30명(2.9%)으로 나타남.
- 바) '읍면지역'으로는 241명(23.1%), '동지역'은 804명(76.9%)으로 조사되었고, 21개 읍면동 중 본 복지관이 위치한 '성덕동'의 응답률(16.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동면'(1.8%)으로 조사됨.

〈표10〉 응답자의 개인적 사항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1045	455 43.5%	590 56.5%	85 8.1%	136 13.0%	109 10.4%	228 21.8%	281 26.9%	206 19.7%
주문진읍	41 3.9%	26 63.4%	15 36.6%	0 0%	0 0%	4 9.8%	14 34.1%	14 34.1%	9 22%
성산면	39 3.7%	21 53.8%	18 46.2%	9 23.1%	0 0%	3 7.7%	6 15.4%	19 48.7%	2 5.1%
왕산면	23 2.2%	12 52.2%	11 47.8%	3 13%	0 0%	0 0%	15 65.2%	5 21.7%	0 0%
구정면	31 3%	14 45.2%	17 54.8%	3 9.7%	8 25.8%	0 0%	8 25.8%	7 22.6%	5 16.1%
강동면	19 1.8%	11 57.9%	8 42.1%	1 5.3%	5 26.3%	2 10.5%	4 21.1%	7 36.8%	0 0%
옥계면	33 3.2%	25 75.8%	8 24.2%	6 18.2%	0 0%	2 6.1%	9 27.3%	12 36.4%	4 12.1%
사천면	24 2.3%	17 70.8%	7 29.2%	3 12.5%	2 8.3%	0 0%	8 33.3%	7 29.2%	4 16.7%
연곡면	31 3%	17 54.8%	14 45.2%	2 6.5%	2 6.5%	6 19.4%	7 22.6%	13 41.9%	1 3.2%
읍면지역	241 23.1%	143 59.3%	98 40.7%	27 11.2%	17 7.1%	17 7.1%	71 29.5%	84 34.9%	25 10.4%
홍제동	69 6.6%	28 40.6%	41 59.4%	7 10.1%	6 8.7%	9 13%	19 27.5%	16 23.2%	12 17.4%
중앙동	34 3.3%	15 44.1%	19 55.9%	0 0%	7 20.6%	3 8.8%	4 11.8%	12 35.3%	8 23.5%
옥천동	22 2.1%	14 63.6%	8 36.4%	3 13.6%	3 13.6%	4 18.2%	3 13.6%	5 22.7%	4 18.2%
교1동	72 6.9%	22 30.6%	50 69.4%	7 9.7%	7 9.7%	16 22.2%	22 30.6%	16 22.2%	4 5.6%
교2동	48 4.6%	28 58.3%	20 41.7%	5 10.4%	8 16.7%	1 2.1%	11 22.9%	13 27.1%	10 20.8%
포남1동	69 6.6%	35 50.7%	34 49.3%	2 2.9%	6 8.7%	8 11.6%	10 14.5%	27 39.1%	16 23.2%
포남2동	31 3%	12 38.7%	19 61.3%	4 12.9%	4 12.9%	2 6.5%	9 29%	8 25.8%	4 12.9%
초당동	20 1.9%	5 25%	15 75%	1 5%	2 10%	1 5%	6 30%	4 20%	6 30%
송정동	39 3.7%	24 61.5%	15 38.5%	12 30.8%	7 17.9%	5 12.8%	9 23.1%	6 15.4%	0 0%
내곡동	111 10.6%	47 42.3%	64 57.7%	6 5.4%	21 18.9%	15 13.5%	23 20.7%	28 25.2%	18 16.2%
강남동	86 8.2%	23 26.7%	63 73.3%	1 1.2%	14 16.3%	8 9.3%	10 11.6%	25 29.1%	28 32.6%
성덕동	173 16.6%	45 26%	128 74%	7 4%	19 11%	15 8.7%	26 15%	35 20.2%	71 41%
경포동	30 2.9%	14 46.7%	16 53.3%	3 10%	15 50%	5 16.7%	5 16.7%	2 6.7%	0 0%
동지역	804 76.9%	312 38.8%	492 61.2%	58 7.2%	119 14.8%	92 11.4%	157 19.5%	197 24.5%	181 22.5%

나.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인식 및 이용 경험 사항

1) 지역사회 내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인식

- 가)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지역주민은 803명(76.8%)이었고,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42명(23.2%)으로 조사됨.
- 나) 연령대별 복지관 인식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고, $\chi^2=100.738$, $p<.001$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복지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연령대는 ‘70대 이상’ 181명(87.9%)으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33명(38.8%)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20대부터 70대 이상 계층까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본 복지관의 주 이용자 및 봉사자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이상인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전체 연령대를 아우르는 복지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2~30대 이하 연령대가 복지관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음.
- 라) 성별에 따른 복지관 인식여부에 대한 교차분석에서도 $\chi^2=19.207$, $p=.001$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파악함. 복지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320명 (70.3%)이고, ‘여성’은 483명(81.9%)으로 나타나, 복지관 인식 수준에 약 11% 차이가 있음.
- 마) 거주동네별 복지관 인식여부 교차분석 또한 $\chi^2=101.880$, $p<.001$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됨. ‘읍면지역’에서는 165명(68.5%)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동지역’에서는 638명(79.4%)로 조사되어, 약 11% 차이가 있음. 가장 인식수준이 낮은 지역은 ‘왕산면’ 39.1%이고, 가장 인식수준이 높은 지역은 ‘연곡면’ 93.5%로 조사됨.

〈표11〉 성별·연령대별 복지관 인식여부 (N = 1,045)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성	여성
전체	1,045	85	136	109	228	281	206	455	590
알고있다	803	33	91	82	178	238	181	320	483
	76.8	38.8%	66.9%	75.2%	78.1%	84.7%	87.9%	70.3%	81.9%
모른다	242	52	45	27	50	43	25	135	107
	23.2	61.2%	33.1%	24.8%	21.9%	15.3%	12.1%	29.7%	18.1%
$\chi^2(p)$		100.738* (<0.001)						19.207* (0.001)	

*p < .05

〈표12〉 거주동네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인식여부

(N = 1,045)

구분	빈도(%)																						계	$\chi^2(p)$	
	죽림동	성산동	왕산동	구정동	강변동	유계동	사천동	포곡동	이포동	홍제동	죽왕동	유천동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죽곡동	송정동	남동	강남동	정동	정북동			배동
남녀	34	24	9	18	16	16	19	29	165	57	22	16	61	28	60	28	15	20	85	71	152	23	638	803	
	82.9	61.5	39.1	58.1	84.2	48.5	79.2	93.5	68.5	82.6	64.7	72.7	84.7	58.3	87.0	90.3	75.0	51.3	76.6	82.6	87.9	76.7	79.4	76.8	
지역	7	15	14	13	3	17	5	2	76	12	12	6	11	20	9	3	5	19	26	15	21	7	166	242	[동네별] 101.880* (<0.001)
	17.1	38.5	60.9	41.9	15.8	51.5	20.8	6.5	31.5	17.4	35.3	27.3	15.3	41.7	13.0	9.7	25.0	48.7	23.4	17.4	12.1	23.3	20.6	23.2	[읍면/동별] 12.354* (<0.001)
계	41	39	23	31	19	33	24	31	241	69	34	22	72	48	69	31	20	39	111	86	173	30	804	10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p < .05

2)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인식경로

가) 본 복지관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803명의 '복지관 인식경로'를 살펴보면, '유관기관(주민센터, 시청, 관리사무소 등) 직원을 통해서' 233명(25.4%), '주변 사람이 소개해줘서' 182명(19.8%), '복지관 리플렛, 홈페이지 등 홍보물을 통해서' 156명(17.0%), '가족, 이웃 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144명(15.7%), '복지관이 진행하는 행사 또는 캠페인을 통해서' 142명(15.5%), '기타' 60명(6.5%) 순으로 조사됨.

나) 연령대별 인식경로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주변 사람이 소개해줘서'가 10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에서도 61명(33.0%)으로 동일하게 가장 비율이 높은 선택지로 조사됨. '30대'의 경우 '복지관 리플렛, 홈페이지 등 홍보물을 통해서'가 35명(30.2%)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또한 28명(26.9%)으로 동일하게 가장 비율이 높은 선택지로 조사됨. 반면, '50대'와 '60대'는 '유관기관(주민센터, 시청, 관리사무소 등) 직원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명(29.0%), 69명(25.7%)으로 본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선택지로 조사됨.

〈표13〉 복지관 인식경로와 연령대 다중반응 교차분석

(N = 782)

구분	전체		빈도(%)					
	%	케이스 중 %	20대 (n=33)	30대 (n=91)	40대 (n=80)	50대 (n=177)	60대 (n=233)	70대이상 (n=168)
전체	917	117.3	34	116	104	210	268	185
주변 사람이 소개해줘서	182 19.8	23.3	10 29.4%	14 12.1%	13 12.5%	29 13.8%	55 20.5%	61 33.0%
가족, 이웃 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144 15.7	18.4	2 5.9%	26 22.4%	20 19.2%	41 19.5%	37 13.8%	18 9.7%
복지관 리플렛, 홈페이지 등 홍보물을 통해서	156 17.0	19.9	9 26.5%	35 30.2%	28 26.9%	33 15.7%	34 12.7%	17 9.2%
유관기관(주민센터, 시청, 관리사무소 등) 직원을 통해서	233 25.4	29.8	9 26.5%	27 23.3%	24 23.1%	61 29.0%	69 25.7%	43 23.2%
복지관이 진행하는 행사 또는 캠페인을 통해서	142 15.5	18.2	4 11.8%	14 12.1%	17 16.3%	36 17.1%	49 18.3%	22 11.9%
기타	60 6.5	7.7	0 0.0%	0 0.0%	2 1.9%	10 4.8%	24 9.0%	24 13.0%

인식경로 기타응답

이사는 후 자연스럽게 알게됨 / 직원소개 / 설거지 봉사 / 봉사(사다리봉사단, 천사본부 몇 년 전 이용) / 봉사 사다리 / 봉사활동 / 봉사활동 / 이사는 후 알게됨 / 생각이 안남 / 입암3주공으로 이사 후 자연스럽게 알게됨 / 봉사활동 위해 자발로 / 직접찾아옴 / 직접 확인 / 거주하게 되어 / 이사와서 알게됨 / 처음 소비자 교육 할 때 방문 / 친구가 이야기해줌 / 지인통해 / 협회 / 협회 / 가까이 거주해서 / 홍보 / 생활지원사를 통해 / 생활지원사를 통해 / 말은 들었지만 생소함 / 소문 듣고 / 복지관 운영하는 스님을 통해 / 봉사 의료봉사하시는 분을 통해 / 봉사를 통해 / 봉사를 통해 / 봉사단체 통해 / 배식봉사 경험 / 배식봉사 경험 / 봉사참여로 알게됨 / 관심이 있어 직접 알아봄 / 복지관 봉사활동 / 아동복지센터에서 강사해 본 적이 있어서 /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 장수식당 배식봉사 경험 / 배식 봉사함 / 지나가다 / 봉사 활동중 / 3주공 주민입니다 / 예전부터 알고 있었음 / 길 가다가 간판을 보고 알게됨 / 배식 봉사활동 / 일자리 참여 / 근처에 거주하여 알게 됨 / 지나가다

3) 지역주민이 보는 향후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가) 본 복지관의 역할로 지역주민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422명(27.1%),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356명(22.8%), ‘주민들과 지역의 문제 해결’ 188명(12.1%),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175명(11.2%), ‘주민들의 관계 연결’ 172명(11.0%),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고 운영’ 137명(8.8%),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90명(5.8%), ‘기타’ 19명(1.2%) 순으로 조사됨. 지역주민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영역 외에도 지역 문제 해결, 주민관계 연결과 같은 지역조직화 영역의 역할도 복지관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연령대별 역할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연령대별 2순위 비율을 보면, ‘20대’의 경우 ‘주민들과 지역의 문제 해결’ 26명(18.44%), ‘30대 이상’부터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21.2%, 23.0%, 25.6%, 26.1%, 21.1%로 조사됨.

다) 성별에 따른 역할 인식을 보면, ‘남성’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169명(25.2%),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135명(20.1%),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93명(13.9%), ‘주민들과 지역의 문제 해결’ 93명(13.9%) 순으로 조사되었고, ‘여성’도 같은 경향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253명(28.5%),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221명(24.9%), ‘주민들과 지역의 문제 해결’ 95명(10.7%) 순으로 조사됨.

〈표14〉 성별·연령대별 지역주민의 향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역할 인식유형

(N = 994)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	케이스 중 %	20대 (n=84)	30대 (n=131)	40대 (n=106)	50대 (n=213)	60대 (n=265)	70대이상 (n=195)	남성 (n=432)	여성 (n=562)
전체	1,559	156.8	141	222	200	336	399	261	671	888
주민들의 관계 연결	172 11.0	17.3	13 9.2%	13 5.9%	25 12.5%	39 11.6%	51 12.8%	31 11.9%	78 11.6%	94 10.6%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175 11.2	17.6	24 17.0%	30 13.5%	18 9.0%	28 8.3%	47 11.8%	28 10.7%	93 13.9%	82 9.2%
주민들과 지역의 문제 해결	188 12.1	18.9	26 18.4%	34 15.3%	26 13.0%	43 12.8%	42 10.5%	17 6.5%	93 13.9%	95 10.7%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고 운영	137 8.8	13.8	20 14.2%	38 17.1%	21 10.5%	14 4.2%	16 4.0%	28 10.7%	54 8.0%	83 9.4%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356 22.8	35.8	18 12.8%	47 21.0%	46 23.0%	86 25.6%	104 26.1%	55 21.1%	135 20.1%	221 24.9%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422 27.1	42.5	31 22.0%	54 24.3%	53 26.5%	101 30.1%	113 28.3%	70 26.8%	169 25.2%	253 28.5%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90 5.8	9.1	9 6.4%	6 2.7%	11 5.5%	22 6.6%	23 5.8%	19 7.3%	42 6.3%	48 5.4%
기타	19 1.2	1.9	0 0.0%	0 0.0%	0 0.0%	3 0.9%	3 0.8%	13 5.0%	7 1.0%	12 1.4%

4)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여부

가) 복지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803명 중 ‘실제로 복지관을 이용한 지역주민’은 391명(48.7%)으로 복지관을 알고 있는 응답자 집단 사이에서도 실제 복지관 이용 현황은 과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됨.

나) 연령대별 복지관 이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고, $\chi^2=89.609$, $p<.001$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관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이용한 연령대는 ‘70대 이상’ 139명(76.8%)이고, 가장 적은 비율로 이용한 연령대는 ‘20대’ 11명(33.3%)으로 나타남.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20대부터 70대 이상 연령대까지 복지관 실제 이용자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파악됨.

다) 성별에 따른 복지관 이용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또한 $\chi^2=6.601$, $p=0.010$ 으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 138명(43.1%), ‘여성’ 253명(52.4%)으로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9.3%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라) 거주동네에 따른 복지관 이용여부 교차분석의 경우 $\chi^2=67.244$, $p<.001$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읍면지역’의 경우 59명(35.8%), ‘동지역’은 332명(52.0%)이 복지관을 실제 이용하며 이용 비율에 16.2% 차이가 있음. 이는, 복지관 위치가 지역주민의 교통 접근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마) 가장 낮은 이용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연곡면’ 10.3%이고, 가장 높은 이용 비율로 조사된 지역은 ‘주문진읍’ 64.7%임. 가장 인식 수준이 높은 지역인 ‘연곡면’이 가장 낮은 이용 비율을 보이는 점과 실제로 본 복지관의 이용 비율이 높지 않은 ‘주문진읍’ 지역주민의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혼동했을 가능성과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사업 이용자의 응답이 크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겠음.

〈표15〉 성별·연령대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여부 (N = 803)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성	여성
전체	803	33	91	82	178	238	181	320	483
이용한 적 있다	391	11	36	24	62	119	139	138	253
	48.7	33.3%	39.6%	29.3%	34.8%	50.0%	76.8%	43.1	52.4
이용한 적 없다	412	22	55	58	116	119	42	182	230
	51.3	66.7%	60.4%	70.7%	65.2%	50.0%	23.2%	56.9	47.6
$\chi^2(p)$		89.609* (<0.001)						6.601* (0.010)	

*p < .05

〈표16〉 이용여부와 거주동네 간의 교차분석

(N = 803)

구분	빈도(%)																						$\chi^2(p)$		
	주말지역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간곡면	옥계면	사천면	외리면	이평(지역)	홍제동	죽영동	아천동	관1동	관2동	포남1동	포남2동	죽남동	송정동	내리동	강남동	정포동	경포동		배고동	계
이용	22	13	4	7	5	2	3	3	59	31	14	7	32	16	28	11	7	6	36	42	95	7	332	391	
	64.7	54.2	44.4	38.9	31.3	12.5	15.8	10.3	35.8	54.4	63.6	43.8	52.5	57.1	46.7	39.3	46.7	30.0	42.4	59.2	62.5	30.4	52.0	48.7	
미이용	12	11	5	11	11	14	16	26	106	26	8	9	29	12	32	17	8	14	49	29	57	16	306	412	[거주동네별 67.244* ($\ll 0.001$) [읍면/동별] 13.908* ($\ll 0.001$)
	35.3	45.8	55.6	61.1	68.8	87.5	84.2	89.7	64.2	45.6	36.4	56.3	47.5	42.9	53.3	60.7	53.3	70.0	57.6	40.8	37.5	69.6	48.0	51.3	
계	34	24	9	18	16	16	19	29	165	57	22	16	61	28	60	28	15	20	85	71	152	23	638	8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 < .05

5)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한 서비스 유형

- 가) 복지관을 이용한 적 있는 지역주민 391명이 이용한 복지관 서비스는 ‘상담 및 지원’ 57명 (11.6%), ‘복지관 프로그램’ 138명(28.2%), ‘복지관 행사’ 68명(13.9%), ‘자원봉사’ 138명 (28.2%), ‘빨래방’ 59명(12.0%), ‘기타’ 30명(6.1%)으로 조사됨.
- 나) 기타 응답으로 식사와 장수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을 작성한 지역주민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을 (신청단계에서 설명하지만)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사업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함. 식사지원과 같은 보호사업은 수동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안내(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유형(첫 번째, 두 번째 비율)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자원봉사 5명 (41.7%), ‘복지관 프로그램’ 3명(25.0%), ‘30대’의 경우 ‘복지관 행사’ 14명(35.0%), ‘복지관 프로그램’ 9명(22.5%), ‘40대’는 ‘자원봉사’ 10명(34.5%), ‘복지관 프로그램’ 9명(31.0%), ‘50대’는 ‘자원봉사’ 33명(44.0%), ‘복지관 프로그램’ 15명(20.0%), ‘60대’의 경우 ‘자원봉사’ 61명(40.9%), ‘복지관 프로그램’ 36명(24.2%), ‘70대 이상’의 경우 ‘복지관 프로그램’ 66명 (35.7%), ‘빨래방’ 35명(18.9%)으로 조사됨.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70대 이상’에서만 빨래방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라) 성별에 따른 복지관 이용 서비스 유형은 ‘남성’의 경우 ‘자원봉사’ 44명(27.7%), ‘복지관 프로그램’ 37명(23.3%), ‘상담 및 지원’ 25명(15.7%) 순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의 경우 ‘복지관 프로그램’ 101명(30.5%), ‘자원봉사’ 94명(28.4%), ‘복지관 행사’ 46명(13.9%) 순으로 나타남.
- 마) 특이사항으로 ‘상담 및 지원’ 비중이 높은 성별은 ‘남성’ 15.7%로 나타났고, ‘여성’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비중이 30.5%로 다른 선택지보다 더 뚜렷한 특성으로 나타남.

〈표17〉 성별·연령대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서비스 유형

(N = 387)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	케이스 중 %	20대 (n=11)	30대 (n=36)	40대 (n=24)	50대 (n=62)	60대 (n=118)	70대이상 (n=136)	남성 (n=136)	여성 (n=251)
전체	490	126.6	12	40	29	75	149	185	159	331
상담 및 지원	57	14.7	2	7	3	7	15	23	25	32
	11.6		16.7%	17.5%	10.3%	9.3%	10.1%	12.4%	15.7%	9.7%
복지관 프로그램	138	35.7	3	9	9	15	36	66	37	101
	28.2		25.0%	22.5%	31.0%	20.0%	24.2%	35.7%	23.3%	30.5%
복지관 행사	68	17.6	1	14	5	8	16	24	22	46
	13.9		8.3%	35.0%	17.2%	10.7%	10.7%	13.0%	13.8%	13.9%
자원봉사	138	35.7	5	8	10	33	61	21	44	94
	28.2		41.7%	20.0%	34.5%	44.0%	40.9%	11.4%	27.7%	28.4%
발래방	59	15.2	1	2	1	7	13	35	20	39
	12.0		8.3%	5.0%	3.5%	9.3%	8.7%	18.9%	12.6%	11.8%
기타	30	7.8	0	0	1	5	8	16	11	19
	6.1		0.00%	0.0%	3.5%	6.7%	5.4%	8.7%	6.9%	5.7%

이용서비스 기타응답

점심 제공 / 장수식당 / 장수식당 / 장수식당 / 장수식당 / 식사제공 / 장수식당 / 장수식당 / 부식 / 부식 / 식료품 지원 / 부식 / 반찬지원 / 전화 통화 / 휴대폰교육 / 책대여 / 교육 / 운동기구 / 재능기부 / 노인 일자리 상담 / 일자리 교육 / 행사장 대관 / 김치 만들 때와 교육

6)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

가) 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지역주민 중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105명(21.2%),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59명(11.9%),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95명(19.2%), ‘취미·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69명(13.9%), ‘봉사활동을 위해서’ 148명(29.8%), ‘기타’ 20명(4.0%)으로 조사됨.

나) 연령대별 복지관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6명(46.2%), ‘취미·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3명(23.1%),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2명(15.4%), ‘봉사활동을 위해서’ 2명(15.4%) 순으로 나타남. ‘30대’의 경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모두 10명(21.3%)으로 조사되었고,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9명(19.1%)으로 확인됨. ‘40대’의 경우 ‘봉사활동을 위해서’ 12명(34.3%),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7명(20.0%),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6명(17.1%)로 조사되었고, ‘50대’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42명(51.9%), ‘취미·여가를 위해서’ 13명(16.0%), ‘도움을 받기 위해서’ 8명(9.9%),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8명(9.9%)으로 나타남.

다) '60대'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62명(41.6%),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29명(19.5%), '취미·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21명(14.1%) 순으로 조사되었고, '70대 이상'의 경우 '도움을 받기 위해서' 64명(37.4%),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35명(20.5%),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22명(12.9%) 순으로 조사됨.

라) 성별에 따른 복지관 이용이유로, '남성'의 경우 '봉사 활동을 위해서' 52명(30.6%), '도움을 받기 위해서' 44명(25.9%),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30명(17.6%) 순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은 '봉사 활동을 위해서' 96명(29.4%),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65명(19.9%), '도움을 받기 위해서' 61명(18.7%) 순으로 나타남.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 봉사활동을 위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해당 범주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남성은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여성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복지관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됨.

〈표18〉 성별·연령대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이유

(N = 388)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	케이스 중 %	20대 (n=11)	30대 (n=36)	40대 (n=24)	50대 (n=62)	60대 (n=118)	70대이상 (n=137)	남성 (n=136)	여성 (n=252)
전체	496	127.8	13	47	35	81	149	171	170	326
도움을 받기 위해서	105 21.2	27.1	0 0.0%	10 21.3	4 11.4%	8 9.9%	19 12.8%	64 37.4%	44 25.9%	61 18.7%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59 11.9	15.2	2 15.4%	10 21.3	6 17.1%	7 8.6%	12 8.1%	22 12.9%	15 8.8%	44 13.5%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95 19.2	24.5	6 46.2%	10 21.3	7 20.0%	8 9.9%	29 19.5%	35 20.5%	30 17.6%	65 19.9%
취미·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69 13.9	17.8	3 23.1%	7 14.9	4 11.4%	13 16.0%	21 14.1%	21 12.3%	24 14.1%	45 13.8%
봉사 활동을 위해서	148 29.8	38.1	2 15.4%	9 19.1	12 34.3%	42 51.9%	62 41.6%	21 12.3%	52 30.6%	96 29.4%
기타	20 4.0	5.2	0 0.0%	1 2.1	2 5.7%	3 3.7%	6 4.0%	8 4.7%	5 2.9%	15 4.6%

이용이유 기타응답

장수식당 이용 / 어머니와 두분에서 살고 계셔서 오게되었다. / 장수식당 식사 / 식사 / 식사 / 식사제공 / 복지관 설명듣고 싶음 / 입주자협의회 / 유관기관 참여 / 일자리 교육 / 교육 /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연결해주기 위해서 / 학교기관으로 연계활동

7)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

가) 본 복지관을 이용한 지역주민 중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사항으로는 ‘복지관 교통 접근성(대중교통 노선 등)’ 103명(27.5%),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74명(19.8%), ‘알기 어려운 복지관 사업 정보’ 73명(19.5%), ‘기타’ 67명(17.9%), ‘복지관 내부 편의시설 부족(장애인 보행 등)’ 42명(11.2%), ‘상담 및 프로그램의 낮은 질’ 15명(4.0%) 순으로 조사됨.

나) 본 복지관 본관이 위치한 장소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교통 접근성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차년도 사업 계획 시 다양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음. 또한, 본 문항의 응답이 복지관 이용 이력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응답하도록 했음에도 복지관 사업 정보 접근성이 낮은 비중이 파악됨에 따라 복지관 사업 홍보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취합된 불편사항 기타응답 내용 중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각 사업 담당자의 사후 조치가 병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표19〉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 간 불편사항 (N = 374)

구분	빈도	%
복지관 교통 접근성(대중교통 노선 등)	103	27.5
복지관 내부 편의시설 부족(장애인 보행 등)	42	11.2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74	19.8
상담 및 프로그램의 낮은 질	15	4.0
알기 어려운 복지관 사업 정보	73	19.5
기타	67	17.9
계	374	100

불편사항 기타응답

오락, 여가 공간의 부족 / 프로그램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 없다 / 복지관 식당 식수기-물이 잘 나오지 않음 / 교통 불편 / 확실히 알지 못함 / 버스지원 / 주차시설 / 운동기구 부족 / 주차문제 / 차량추진 / 다양한 일자리 부족 / 직원 간 소통 부재 / 주차공간 / 교통지원 / 난방비 지원 / 실생활에 필요한 법적인 것도 했으면 합니다. / 운동기구 설치 및 장소 마련

다. 지역주민 복지욕구 현황

1) 자녀연령별 필요한 복지 서비스

가)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지역주민은 전체 중 107명(10.4%)으로 조사되었고, 자녀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48명(25.7%),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37명(19.8%), '문화·여가 프로그램' 28명(15.0%), '상담 및 심리지원' 26명(13.9%), '진로탐색' 22명(11.8%), '식사지원' 17명(9.1%), '자원봉사자' 8명(4.3%), '기타' 1명(0.5%) 순으로 조사됨.

〈표20〉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에 따른 복지서비스 욕구

	내용	전체(%)		내용	전체		
					(%)	케이스 중 %	
자녀유무 (n=1025)	있다	107	복지서비스욕구 (n=100)	상담 및 심리지원	26 13.9	24.5%	
		없다		10.4	진로탐색	22 11.8	20.8%
				918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37 19.8	34.9%
	89.6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48 25.7	45.3%
		1,025			자원봉사	8 4.3	7.5%
				계	문화·여가 프로그램	28 15.0	26.4%
	기타				1 0.5	0.9%	
	100	계			187	176.4	

나) 반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지역주민은 84명(8.3%)로 나타남.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37명(27.2%), '진로탐색' 30명(22.1%), '상담 및 심리지원' 27명(19.9%), '문화·여가 프로그램' 14명(10.3%),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12명(8.8%), '자원봉사' 11명(8.1%), '식사지원' 5명(3.7%) 순으로 조사됨.

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단은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상담 및 심리지원, 진로탐색,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자원봉사 선택 비율이 높았고,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단은 식사지원,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문화·여가 프로그램 선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자녀의 성장단계별로 보호자들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표21〉 중·고등학생 자녀에 따른 복지서비스 욕구

자녀유무(n=1016)	내용	전체(%)	복지서비스요구(n=83)	내용	전체	
					(%)	케이스 중 %
있다		84		상담 및 심리지원	27 19.9	32.5%
		8.3		진로탐색	30 22.1	36.1%
없다		932		식사지원	5 3.7	6.0%
		91.7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37 27.2	44.6%
계		1,016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12 8.8	14.5%
		100		자원봉사	11 8.1	13.3%
				문화·여가 프로그램	14 10.3	16.9%
				기타	0 0	0
				계	136	163.9%

2) 응답자의 연령대에 필요한 복지지원(수급 및 지원사업) 사업 유형

가) 문항에서 언급되는 ‘복지지원’은 지역사회보호 및 사례관리 사업과 같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복지프로그램’은 서비스제공 및 지역조직화와 같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함. 모든 복지서비스 유형에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제외함.

나) 필요한 복지지원은 ‘보건의료지원’ 393명(23.2%), ‘상담 및 심리지원’ 314명(19.5%), ‘취업지원’ 269명(16.7%), ‘주거개선 및 지원’ 252명(15.7%), ‘돌봄 및 양육지원’ 164명(10.2%), ‘식사지원’ 134명(13.0%), ‘세탁지원’ 77명(4.8%), ‘기타’ 26명(1.6%) 순으로 조사됨.

다) 연령대별 필요한 복지지원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취업지원’ 43명(35.5%) ‘상담 및 심리지원’ 26명(21.5%), ‘식사지원’ 21명(17.4%), ‘주거개선 및 지원’ 15명(12.4%), ‘보건의료지원’ 13명(10.7%), ‘돌봄 및 양육지원’ 3명(2.5%) 순으로 조사됨.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다소 분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대’는 ‘취업지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과반인 것으로 파악됨. 또한, ‘식사지원’을 받고있는 ‘60대 이상’ 계층을 제외한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식사지원 욕구 비중이 3순위 안으로 확인되는 계층임.

- 라) '30대'의 경우, '취업지원' 54명(23.5%), '상담 및 심리지원' 50명(21.7%), '주거개선 및 지원' 47명(20.4%), '보건의료지원' 35명(15.2%), '돌봄 및 양육지원' 35명(15.2%), '식사지원' 6명(2.6%), '세탁지원' 3명(1.3%) 순으로 조사됨. '20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이 많이 분포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업지원' 욕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20대와 비교하였을 때 '돌봄 및 양육지원'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마) '40대'의 경우, '상담 및 심리지원' 38명(19.8%), '주거개선 및 지원' 36명(18.8%), '돌봄 및 양육지원' 36명(18.8%), '보건의료지원' 34명(17.7%), '취업지원' 29명(15.1%), '식사지원' 9명(4.7%), '세탁지원' 7명(3.6%), '기타' 3명(1.6%) 순으로 나타남. '40대'는 '취업지원 및 식사', '세탁지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욕구가 골고루 분포됨. 다만, 30대, 40대의 경우 '주거개선 및 지원'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낮은 주거안정성의 문제인지, 거주지 내 열악한 환경 문제인지는 본 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음.
- 바) '50대'의 경우, '보건의료지원' 97명(27.2%), '상담 및 심리지원' 86명(24.1%), '취업지원' 58명(16.2%), '주거개선 및 지원' 54명(15.1%), '돌봄 및 양육지원' 29명(8.1%), '식사지원' 19명(5.3%), '세탁지원' 9명(2.5%), '기타' 5명(1.4%) 순으로 조사됨. 50대는 앞의 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보건의료지원 선택 비중이 더 커졌으며, 40대에서는 5순위였던 취업지원 비중이 50대에서는 다시 3순위 비중으로 커짐.
- 사) '60대'의 경우, '보건의료지원' 128명(29.6%), '상담 및 심리지원' 80명(18.5%), '주거개선 및 지원' 66명(15.2%), '취업지원' 54명(12.5%), '돌봄 및 양육지원' 45명(10.4%), '식사지원' 33명(7.6%), '세탁지원' 20명(4.6%) '기타' 7명(1.6%) 순으로 조사됨.
- 아) '70대 이상'의 경우, '보건의료지원' 66명(23.9%), '식사지원' 46명(16.7%), '세탁지원' 38명(13.8%), '상담 및 심리지원' 34명(12.3%), '주거개선 및 지원' 34명(12.3%), '취업지원' 31명(11.2%), '돌봄 및 양육지원' 16명(5.8%), '기타' 11명(4.0%) 순으로 조사됨.
- 자) 성별에 따른 차이도 파악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보건의료지원' 161명(23.0%), '주거개선 및 지원' 126명(18.0%), '상담 및 심리지원' 118명(16.9%), '취업지원' 104명(14.9%), '돌봄 및 양육지원' 80명(11.4%), '식사지원' 67명(9.6%), '세탁지원' 35명(5.0%), '기타' 8명(1.1%) 순으로 나타남.

차) 반면, ‘여성’은 ‘보건의료지원’ 212명(23.3%), ‘상담 및 심리지원’ 196명(21.5%), ‘취업지원’ 165명(18.1%), ‘주거개선 및 지원’ 126명(13.8%), ‘돌봄 및 양육지원’ 84명(9.2%), ‘식사지원’ 67명(7.4%), ‘세탁지원’ 42명(4.6%), ‘기타’ 18명(2.0%) 순으로 조사됨.

카) 보건의료지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 1순위 비중으로 응답되었으나, 그 외 우선순위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성별에 따라 우선시하는 복지지원 유형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비중에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한 욕구는 상담 및 심리지원으로 7.7% 차이임(여성 21.5%, 남성 16.9%).

〈표22〉 성별·연령대별 필요한 복지지원 유형

(N = 1,029)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	케이스 중 %	20대 (n=85)	30대 (n=136)	40대 (n=109)	50대 (n=223)	60대 (n=278)	70대이상 (n=198)	남성 (n=450)	여성 (n=579)
전체	1,609	156.4	121	230	192	357	433	276	699	910
상담 및 심리지원	314 19.5	30.5	26 21.5%	50 21.7%	38 19.8%	86 24.1%	80 18.5%	34 12.3%	118 16.9%	196 21.5%
취업지원	269 16.7	26.1	43 35.5%	54 23.5%	29 15.1%	58 16.2%	54 12.5%	31 11.2%	104 14.9%	165 18.1%
식사지원	134 8.3	13.0	21 17.4%	6 2.6%	9 4.7%	19 5.3%	33 7.6%	46 16.7%	67 9.6%	67 7.4%
보건의료지원	393 23.2	36.2	13 10.7%	35 15.2%	34 17.7%	97 27.2%	128 29.6%	66 23.9%	161 23.0%	212 23.3%
주거개선 및 지원	252 15.7	24.5	15 12.4%	47 20.4%	36 18.8%	54 15.1%	66 15.2%	34 12.3%	126 18.0%	126 13.8%
돌봄 및 양육지원	164 10.2	15.9	3 2.5%	35 15.2%	36 18.8%	29 8.1%	45 10.4%	16 5.8%	80 11.4%	84 9.2%
세탁지원	77 4.8	7.5	0 0.0%	3 1.3%	7 3.6%	9 2.5%	20 4.6%	38 13.8%	35 5.0%	42 4.6%
기타	26 1.6	2.5	0 0.0%	0 0.0%	3 1.6%	5 1.4%	7 1.6%	11 4.0%	8 1.1%	18 2.0%

복지지원 기타응답

봉사 / 놀이 지원 / 건강 지원 / 교육 / 교육지원 / 부식지원 / 불필요 / 개인소양개발 / 건강관리 체험프로그램 / 교육문화프로그램 / 찾아가는 서비스 / 복지, 행사, 경제 등 다양한 정보 / 여가 문화 활동 지원

2) 응답자의 연령대에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이용자 참여사업) 사업 유형

- 가)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445명(26.4%),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353명(20.9%),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305명(18.1%), ‘학습지원·자기계발’ 146명(8.7%), ‘자격증 취득’ 140명(8.3%), ‘디지털교육’ 137명(8.1%), ‘요리교실’ 86명(5.1%), ‘가족교육’ 44명(2.6%), ‘기타’ 30명(1.8%) 순으로 조사됨.
- 나) 연령대별 필요한 복지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20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27명(23.7%), ‘문화·여가 프로그램’ 20명(17.5%), ‘학습지원·자기계발’ 17명(14.9%),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17명(14.9%),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12명(10.5%), ‘디지털교육’ 10명(8.8%), ‘요리교실’ 7명(6.1%), ‘가족교육’ 4명(3.5%) 순으로 나타남. 복지지원의 취업지원과 일맥상통하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가장 큰 비중으로 조사됨.
- 다) ‘30대’를 살펴보면, ‘문화·여가 프로그램’ 38명(20.7%), ‘학습지원·자기계발’ 47명(20.3%),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38명(16.4%), ‘자격증 취득’ 32명(13.8%),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27명(11.6%), ‘요리교실’ 17명(7.3%), ‘디지털교육’ 12명(5.2%), ‘가족교육’ 11명(4.7%) 순으로 조사됨.
- 라) ‘40대’의 경우, ‘문화·여가 프로그램’ 56명(26.0%),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33명(15.3%), ‘자격증 취득’ 32명(14.9%),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32명(14.9%),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28명(13.0%), ‘요리교실’ 13명(6.0%), ‘가족교육’ 11명(5.1%), ‘디지털교육’ 9명(7.8%), ‘기타’ 1명(0.5%) 순으로 조사됨.
- 마) ‘50대’의 경우, ‘문화·여가 프로그램’ 104명(26.9%),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87명(22.5%),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87명(22.5%), ‘자격증 취득’ 30명(7.8%), ‘디지털교육’ 30명(7.8%), ‘학습지원·자기계발’ 22명(5.7%), ‘요리교실’ 16명(4.1%), ‘가족교육’ 6명(1.6%), ‘기타’ 4명(1.0%) 순으로 조사됨.
- 바) ‘60대’의 경우, ‘문화·여가 프로그램’ 139명(30.0%),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111명(23.9%),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102명(22.0%), ‘디지털교육’ 49명(10.6%), ‘요리교실’ 20명(4.3%), ‘자격증 취득’ 17명(3.7%),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14명(3.0%), ‘가족교육’ 6명(1.3%), ‘기타’ 6명(1.3%) 순으로 조사됨.
- 사) ‘70대 이상’의 경우, ‘문화·여가 프로그램’ 78명(28.4%),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67명(24.4%),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45명(16.4%), ‘디지털교육’ 27명(9.8%), ‘기타’ 19명(6.9%), ‘학습지원·자기계발’ 18명(6.5%), ‘요리교실’ 13명(4.7%), ‘가족교육’ 6명(2.2%), ‘자격증 취득’ 2명(0.7%) 순으로 조사됨.

아) 성별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문화·여가 프로그램’,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선택 비중이 1~3순위로 같았으나, 4순위부터는 ‘여성’의 경우 ‘자격증 취득’ 90명(9.4%), ‘학습지원·자기계발’ 85명(8.9%), ‘디지털교육’ 74명(7.7%)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디지털교육’ 63명(8.7%), ‘학습지원·자기계발’ 61명(8.4%), ‘자격증 취득’ 50명(6.9%) 순으로 성별 간의 차이가 있었음.

〈표23〉 성별·연령대별 필요한 복지프로그램 유형

(N = 1,030)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	케이스 중 %	20대 (n=84)	30대 (n=136)	40대 (n=109)	50대 (n=224)	60대 (n=278)	70대이상 (n=199)	남성 (n=450)	여성 (n=580)
전체	1,686	163.7	114	232	215	386	464	275	727	959
문화·여가 프로그램	445	43.2	20	48	56	104	139	78	177	268
	26.4		17.5%	20.7%	26.0%	26.9%	30.0%	28.4%	24.3%	27.9%
자격증 취득	140	13.6	27	32	32	30	17	2	50	90
	8.3		23.7%	13.8%	14.9%	7.8%	3.7%	0.7%	6.9%	9.4%
학습지원·자기계발	146	14.2	17	47	28	22	14	18	61	85
	8.7		14.9%	20.3%	13.0%	5.7%	3.0%	6.5%	8.4%	8.9%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353	34.3	17	38	33	87	111	67	159	194
	20.9		14.9%	16.4%	15.3%	22.5%	23.9%	24.4%	21.9%	20.2%
요리교실	86	8.3	7	17	13	16	20	13	28	58
	5.1		6.1%	7.3%	6.0%	4.1%	4.3%	4.7%	3.9%	6.0%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305	29.6	12	27	32	87	102	45	151	154
	18.1		10.5%	11.6%	14.9%	22.5%	22.0%	16.4%	20.8%	16.1%
디지털교육 (스마트폰 등)	137	13.3	10	12	9	30	49	27	63	74
	8.1		8.8%	5.2%	4.2%	7.8%	10.6%	9.8%	8.7%	7.7%
가족교육	44	4.3	4	11	11	6	6	6	25	19
	2.6		3.5%	4.7%	5.1%	1.6%	1.3%	2.2%	3.4%	2.0%
기타	30	2.9	0	0	1	4	6	19	13	17
	1.8		0.0%	0.0%	0.5%	1.0%	1.3%	6.9%	1.8%	1.8%

복지프로그램 기타응답

정신건강(우울증) 상담 / 윤리, 도덕, 현시대에 대한 설명 및 변천하는 사회상(현재까지 잘못 인식 된 문화 바로 잡기) / 취업지원 / 일자리 / 말벗, 생활 환경 순회 방문

3)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시간

가) 희망 이용시간으로 '평일 오후' 291명(28.5%), '평일 오전' 273명(26.7%), '주말(토요일)' 222명(21.7%), '평일 야간' 204명(20.0%), '기타' 32명(3.1%) 순으로 조사됨. 기타 응답으로 '상관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평일 야간 9시 이후와 일요일 응답도 확인됨.

나) 연령대별 희망 이용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고, $\chi^2=265.239$, $p<.001$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각 집단별로 가장 선호하는 이용시간대는 '20대'의 경우 '평일 야간' 35명(41.2%), '30대'와 '40대', '50대'는 '주말(토요일)' 각 55명(40.4%), 36명(33.0%), 60명(27.1%)이고, '60대'와 '70대 이상'은 '평일 오전'을 104명(38.0%), 94명(47.7%)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대체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20~50대는 퇴근 이후와 토요일을 선호했고, 60대 이상 집단은 평일 오전·오후 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성별에 따른 희망 이용시간대 교차분석의 경우 $\chi^2=18.100$, $p=0.001$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됨. 각 집단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용 시간대는 '남성'의 경우 '평일 오후' 131명(29.4%), '여성'의 경우 '평일 오전' 183명(31.7%)으로 조사됨.

〈표24〉 성별·연령대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 이용시간 (N = 1,022)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성	여성
전체	1,022	85	136	109	221	274	197	445	577
평일 오전 (9시~12시)	273 26.7%	7 8.2%	3 2.2%	19 17.4%	46 20.8%	104 38.0%	94 47.7%	90 20.2%	183 31.7%
평일 오후 (13시~18시)	291 28.5%	16 18.8%	34 25.0%	20 18.3%	58 26.2%	98 35.8%	65 33.0%	131 29.4%	160 27.7%
평일 야간 (18시~20시)	204 20.0%	35 41.2%	44 32.4%	30 27.5%	50 22.6%	37 13.5%	8 4.1%	100 22.5%	104 18.0%
주말 (토요일)	222 21.7%	27 31.8%	55 40.4%	36 33.0%	60 27.1%	30 10.9%	14 7.1%	109 24.5%	113 19.6%
기타	32 3.1%	0 0.0%	0 0.0%	4 3.7%	7 3.2%	5 1.8%	16 8.1%	15 3.4%	17 2.9%
$\chi^2(p)$		265.239* (〈0.001)						18.100* (0.001)	

*p < .05

희망 이용시간 기타응답

상관없음 / 상관없음 / 상관없음 / 상관없음 / 상관없음 / 상관없음 / 추후 이용계획 / 거동 불편 / 시간 되는데로 / 평일 야간 19:00~21:00 / 상관없음 / 일요일 / 일요일 / 일요일 / 밤9시 이후 / 21시 이후 / 21시 이후 / 농한기 /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

4) 지역주민의 마을 내 사회복지문제 중요도 인식

가) 응답한 전체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마을 내 사회복지문제 중요도는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323명(18.6%), ‘고독사 등 소외·고립된 사람들’ 275명(15.9%), ‘사각지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275명(15.9%), ‘비대면 전환에 따른 정보 격차 심화’ 183명(10.6%), ‘질병·장애가 있는 부모나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177명(10.2%), ‘지저분한 골목 및 거리환경’ 160명(9.2%), ‘가족 및 이웃 간의 갈등 심화’ 150명(8.7%),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 144명(8.3%), ‘기타’ 46명(2.7%) 순으로 조사됨.

나) 단, 본 문항의 결과로는 마을 내에 해당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응답자들이 생각하였을 때 중요한 문제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각 선택지를 지역별로 나눠 분석을 진행하면서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어, 비중의 차이를 두고 지역 간 평균을 비교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음.

다) 따라서, 본 복지관에서는 마을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할 때 기초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별도 아웃리치, 주요정보제공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심층적인 마을 문제 탐색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라) 거주동네별 지역주민의 마을 내 사회복지문제 중요도 인식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1순위 ‘고독사 등 소외·고립된 사람들’ 67명(17.9%), 2순위 ‘필요한 돌봄 받지 못하는 사람들’ 57명(15.2%), ‘사각지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57명(15.2%), 3순위 ‘가족 및 이웃 간의 갈등 심화’ 53명(14.2%)으로 조사됨.

마) ‘동지역’의 경우는 1순위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266명(19.6%), 2순위 ‘사각지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218명(16.0%), 3순위 ‘고독사 등 소외·고립된 사람들’ 208명(15.3%)으로 조사됨.

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비교하였을 때, ‘가족 및 이웃 간의 갈등 심화’ 비중이 ‘읍면지역’ 14.2%, ‘동지역’ 7.1%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25〉 주민의 지역사회(마을) 문제 인식

(N = 1,023)

구분	빈도	%	케이스 중 %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 (달방, 노숙, 지저분한 환경 등)	144	8.3%	14.1%
지저분한 골목 및 거리 환경	160	9.2%	15.6%
고독사 등 소외·고립된 사람들	275	15.9%	26.9%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323	18.6%	31.6%
질병·장애가 있는 부모나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177	10.2%	17.3%
비대면 전환에 따른 정보 격차 심화	183	10.6%	17.9%
사각지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송파 세모녀 등)	275	15.9%	26.9%
가족 및 이웃 간의 갈등 심화	150	8.7%	14.7%
기타	46	2.7%	4.5%
계	1,733	100.0%	169.4%

지역사회문제 기타응답

모두 필요 / 질서 부족 / 너무 많음 / 이웃과의 소통, 반려견 / 운동기구 없음 / 잘 모르겠습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너무 과민한 반응과 과도한 법적처벌, 사소한 훈육에도 법적 처벌이 과도함 /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며 늘어가면서 대화의 상대가 없으니 갈수록 단절되어 답답하기만 함 / 쓰레기 무단투기로 마을이 매우 지저분함 / 강릉지역 이주민과 강릉 시민들과의 어울림 부재 / 주차

〈표26〉 거주동네별 주민의 지역사회(마을) 문제 인식

(N = 1,023)

구분	전체		빈도(%)																						
	%	케이스 중 %	주문진입 n=41	성산면 n=38	왕산면 n=23	구정면 n=29	강동면 n=19	옥계면 n=30	사천면 n=23	연곡면 n=31	읍면지역 n=234	홍제동 n=67	중앙동 n=34	옥천동 n=21	교1동 n=72	교2동 n=47	포남1동 n=66	포남2동 n=31	초당동 n=20	송정동 n=39	내곡동 n=110	강남동 n=82	성덕동 n=170	경포동 n=30	동지역 n=789
전체	1,733	169.4	70	56	32	38	34	50	30	64	374	133	66	40	127	64	110	53	34	68	192	145	275	52	1,359
1	144	14.1	6	5	5	4	2	5	4	0	31	12	7	6	11	3	12	3	0	5	19	12	21	2	113
	8.3		8.6%	8.9%	15.6%	10.5%	5.9%	10.0%	13.3%	0.0%	8.3%	9.0%	10.6%	15.0%	8.7%	4.7%	10.9%	5.7%	0.0%	7.4%	9.9%	8.3%	7.6%	3.8%	8.3%
2	160	15.6	6	7	1	5	5	7	1	1	33	10	6	6	13	9	7	6	2	5	16	18	25	4	127
	9.2		8.6%	12.5%	3.1%	13.2%	14.7%	14.0%	3.3%	1.6%	8.8%	7.5%	9.1%	15.0%	10.2%	14.1%	6.4%	11.3%	5.9%	7.4%	8.3%	12.4%	9.1%	7.7%	9.3%
3	275	26.9	13	4	5	6	7	8	6	18	67	22	13	7	13	7	14	9	6	11	30	16	48	12	208
	15.9		18.6%	7.1%	15.6%	15.8%	20.6%	16.0%	20.0%	28.1%	17.9%	16.5%	19.7%	17.5%	10.2%	10.9%	12.7%	17.0%	17.6%	16.2%	15.6%	11.0%	17.5%	23.1%	15.3%
4	323	31.6	10	12	4	10	3	7	7	4	57	26	10	4	29	21	23	11	8	15	39	28	41	11	266
	18.6		14.3%	21.4%	12.5%	26.3%	8.8%	14.0%	23.3%	6.3%	15.2%	19.5%	15.2%	10.0%	22.8%	32.8%	20.9%	20.8%	23.5%	22.1%	20.3%	19.3%	14.9%	21.2%	19.6%
5	177	17.3	7	7	4	1	2	6	2	2	31	17	5	5	13	6	11	4	4	10	17	21	23	10	146
	10.2		10.0%	12.5%	12.5%	2.6%	5.9%	12.0%	6.7%	3.1%	8.3%	12.8%	7.6%	12.5%	10.2%	9.4%	10.0%	7.5%	11.8%	14.7%	8.9%	14.5%	8.4%	19.2%	10.7%
6	183	17.9	6	7	1	4	3	2	2	16	41	9	10	4	19	0	7	5	7	7	26	19	23	6	142
	10.6		8.6%	12.5%	3.1%	10.5%	8.8%	4.0%	6.7%	25.0%	11.0%	6.8%	15.2%	10.0%	15.0%	0.0%	6.4%	9.4%	20.6%	10.3%	13.5%	13.1%	8.4%	11.5%	10.4%
7	275	26.9	14	8	8	5	7	9	2	4	57	26	11	5	18	15	23	11	4	12	27	15	47	4	218
	15.9		20.0%	14.3%	25.0%	13.2%	20.6%	18.0%	6.7%	6.3%	15.2%	19.5%	16.7%	12.5%	14.2%	23.4%	20.9%	20.8%	11.8%	17.6%	14.1%	10.3%	17.1%	7.7%	16.0%
8	150	14.7	8	6	4	3	4	4	5	19	53	9	4	3	9	2	10	3	3	3	14	11	23	3	97
	8.7		11.4%	10.7%	12.5%	7.9%	11.8%	8.0%	16.7%	29.7%	14.2%	6.8%	6.1%	7.5%	7.1%	3.1%	9.1%	5.7%	8.8%	4.4%	7.3%	7.6%	8.4%	5.8%	7.1%
9	46	4.5	0	0	0	0	1	2	1	0	4	2	0	0	2	1	3	1	0	0	4	5	24	0	42
	2.7		0.0%	0.0%	0.0%	0.0%	2.9%	4.0%	3.3%	0.0%	1.1%	1.5%	0.0%	0.0%	1.6%	1.6%	2.7%	1.9%	0.0%	0.0%	2.1%	3.4%	8.7%	0.0%	3.1%

1.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달밤, 노숙, 지저분한 환경 등) / 2. 지저분한 골목 및 거리 환경 / 3. 고독사 등 소외·고립된 사람들 / 4.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 5. 질병·장애가 있는 부모나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 6. 비대면 전환에 따른 정보 격차 심화 / 7. 사각지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송파 세모녀 등) / 8. 가족 및 이웃 간의 갈등 심화 / 9. 기타

5)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역할

- 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의 역할로 '이웃과 나눌 기회 조성' 385명(24.1%), '이웃과 함께할 활동 제안' 286명(17.9%), '이웃을 돌보는 봉사자에 대한 지지 격려' 246명(15.4%),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찾고 해결하도록 지원' 238명(14.9%), '마을공동체 주제의 주민교육' 221명(13.9%), '이웃과 함께할 장소와 비용지원' 197명(12.4%), '기타' 22명(1.4%) 순으로 조사됨.
- 나) 연령대별 분석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1순위 '이웃과 나눌 기회 조성' 26명(23.2%), 2순위 '마을공동체 주제의 주민교육' 19명(17.0%) 순으로 나타났고, '30대'는 1순위 '이웃과 함께할 장소와 비용지원' 52명(23.1%), 2순위 '이웃과 나눌 기회 조성' 50명(22.2%)으로 조사됨. '40대' 이상부터는 1순위 '이웃과 나눌 기회 조성', 2순위 '이웃과 함께할 활동 제안'이 고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남.
- 다) 특이사항으로, '이웃과 나눌 기회 조성'은 전 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중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웃과 함께할 활동 제안'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웃과 함께할 장소와 비용지원'은 30대 23.1%로 타 연령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라)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이웃을 돌보는 봉사자에 대한 지지·격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지속적인 자원봉사 동기부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마) 주민조직화 영역과 관련된 '마을공동체 주제의 주민교육'은 '20대'가 17.0%로 다른 연령대보다 비중이 높았고,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찾고 해결하도록 지원'은 '50대'가 17.5%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 바) 성별에 따른 분석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1순위는 '이웃과 나눌 기회 조성', 2순위는 '이웃과 함께할 활동 제안'으로 조사되었으나, 3순위부터는 '남성'의 경우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찾고 해결하도록 지원' 116명(16.8%), '이웃을 돌보는 봉사자에 대한 지지 격려' 110명(16.0%), '마을공동체 주제의 주민교육' 96명(13.9%), '이웃과 함께할 장소와 비용지원' 78명(11.3%), '기타' 6명(0.9%) 순으로 조사됨.
- 사) 반면, '여성'의 경우 '이웃을 돌보는 봉사자에 대한 지지 격려' 136명(15.0%), '마을공동체 주제의 주민교육' 125명(13.8%),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찾고 해결하도록 지원' 122명(13.5%), '이웃과 함께할 장소와 비용지원' 119명(13.1%), '기타' 16명(1.8%) 순으로 조사됨.

〈표27〉 성별·연령대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역할

(N = 1,028)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	케이스 중 %	20대 (n=85)	30대 (n=136)	40대 (n=109)	50대 (n=222)	60대 (n=277)	70대이상 (n=199)	남성 (n=449)	여성 (n=579)
전체	1,595	155.2	112	225	195	359	438	266	689	906
이웃과 함께할 활동 제안 (모임, 영상, 행사기획 등)	286	27.8	15	27	43	65	87	49	119	167
	17.9		13.4%	12.0%	22.1%	18.1%	19.9%	18.4%	17.3%	18.4%
이웃과 나눌 기회 조성 (음식, 물건, 정보)	385	37.5	26	50	53	84	97	75	164	221
	24.1		23.2%	22.2%	27.2%	23.4%	22.1%	28.2%	23.8%	24.4%
이웃과 함께할 장소와 비용지원	197	19.2	17	52	21	37	44	26	78	119
	12.4		15.2%	23.1%	10.8%	10.3%	10.0%	9.8%	11.3%	13.1%
이웃을 돌보는 봉사자에 대한 지자 격려 (활동비, 감사자 등)	246	23.9	18	44	35	52	62	35	110	136
	15.4		16.1%	19.6%	17.9%	14.5%	14.2%	13.2%	16.0%	15.0%
마을공동체 주제의 주민교육	221	21.5	19	28	17	56	68	33	96	125
	13.9		17.0%	12.4%	8.7%	15.6%	15.5%	12.4%	13.9%	13.8%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찾고 해결하도록 지원 (간담회 등)	238	23.2	17	24	25	63	72	37	116	122
	14.9		15.2%	10.7%	12.8%	17.5%	16.4%	13.9%	16.8%	13.5%
기타	22	2.1	0	0	1	2	8	11	6	16
	1.4		0.0%	0.0%	0.5%	0.6%	1.8%	4.1%	0.9%	1.8%

주민복지 향상 기타응답

잘 모르겠음 /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식사 챙겨주기 / 모르겠다 / 주민보호, 문제해결 / 급식 지원 / 다양한 노인 일자리

6)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진행 시 참여 의향

- 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사업 참여의향은 전체 응답자 중 718명(69.8%)로 조사됨. 복지관을 알고 있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다수 응답에 참여한 점이 높은 참여율이 나온 하나의 배경으로 생각됨.
- 나) 연령대별 사업 참여 여부 교차분석을 시행하였고, $\chi^2=126.096$, $p<.001$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됨. ‘참여한다’로 응답한 ‘20대’와 ‘30대’는 각각 35.3%, 41.9% 비중으로 나타났으나, ‘40~7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79.8%, 76.5%, 80.4%, 75.8%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다) 성별에 따른 사업 참여 여부 교차분석도 시행하였는데, $\chi^2=8.014$, $p=0.005$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참여한다’로 응답한 ‘남성’은 294명(65.2%)인 반면, ‘여성’은 424명(73.4%)로 조사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라) 거주동네에 따른 사업 참여 여부 교차분석 또한, $\chi^2=82.625$, $p=10.434$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읍면지역’의 경우 ‘참여한다’ 비중이 144명(61.3%)인 반면, ‘동지역’의 경우 574명(72.3%)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마) 다만, 특이사항으로 ‘읍면지역’의 경우 ‘연곡면’(19.4%)이 참여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지역’에서는 ‘송정동’(59.0%), ‘경포동’(42.4%)이 다른 지역에 비해 ‘참여한다’를 선택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28> 성별·연령대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사업 참여 (N = 1,029)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성	여성
전체	1,029	85	136	109	226	275	198	451	578
참여한다	718	30	57	87	173	221	150	294	424
	69.8%	35.3%	41.9%	79.8%	76.5%	80.4%	75.8%	65.2%	73.4%
참여하지 않는다	311	55	79	22	53	54	48	157	154
	30.2%	64.7%	58.1%	20.2%	23.5%	19.6%	24.2%	34.8%	26.6%
$\chi^2(p)$		126.096* (<0.001)						8.014* (0.005)	

*p < .05

〈표29〉 주민복지 강화 사업 참여 여부와 거주동네 간의 교차분석

(N = 1,029)

구분	빈도(%)																						$\chi^2(p)$		
	주민복지팀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포면	옥계면	사천면	연곡면	이포면(지역)	흥제동	죽암동	유천동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죽림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동지동	계
참여	35	24	15	19	16	17	12	6	144	52	24	14	59	34	56	26	16	23	72	65	120	13	574	718	
	85.4%	64.9%	65.2%	61.3%	84.2%	56.7%	52.2%	19.4%	61.3%	75.4%	70.6%	63.6%	81.9%	72.3%	82.4%	83.9%	80.0%	59.0%	66.7%	78.3%	70.2%	43.3%	72.3%	69.8%	
미참여	6	13	8	12	3	13	11	25	91	17	10	8	13	13	12	5	4	16	36	18	51	17	220	311	[거주동네별 82.625* ($<.001$) [읍면/동별 10.434* (.001)
	14.6%	35.1%	34.8%	38.7%	15.8%	43.3%	47.8%	80.6%	38.7%	24.6%	29.4%	36.4%	18.1%	27.7%	17.6%	16.1%	20.0%	41.0%	33.3%	21.7%	29.8%	56.7%	27.7%	30.2%	
계	41	37	23	31	19	30	23	31	235	69	34	22	72	47	68	31	20	39	108	83	171	30	794	10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 < .05

바) '참여한다'를 선택한 지역주민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호 활동 유형은 '관련 교육(강의)참여' 191명(27.0%), '마을문제 해결 모임' 189명(26.7%), '환경 가꾸기 활동' 122명(17.2%), '친목모임(동아리) 참여' 112명(15.8%), '행사 기획 및 진행' 75명(10.6%), '기자단 활동(마을신문 제작 등)' 10명(1.4%), '기타' 9명(1.3%) 순으로 조사됨.

〈표30〉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호 활동 유형

(N = 708)

구분	빈도	%
관련 교육(강의) 참여	191	27.0
행사 기획 및 진행	75	10.6
환경 가꾸기 활동	122	17.2
마을문제 해결 모임(사각지대 발굴 등)	189	26.7
기자단 활동(마을신문 제작 등)	10	1.4
친목모임(동아리) 참여	112	15.8
기타	9	1.3
계	708	100.0

선호활동유형 기타응답

청각장애인 관련 교육 / 봉사활동 / 주민봉사

7) 도움이 필요한 이웃 목격 여부와 도움을 준 방법

가) 전체 응답자 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목격'한 경우는 692명(67.2%)으로 조사됨.

나) 다만, 본 문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기준은 각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며, 지역주민의 관찰 기준이므로 실제 복지 수요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본 문항을 통해 지역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마을 내 도움 필요 이웃의 목격 비중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조직화 사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음.

다) 거주동네별 도움이 필요한 이웃 목격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 $\chi^2=36.785$, $p=.012$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읍면지역'에서는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명(74.3%)인 반면, '동지역'에서는 516명(65.2%)으로 조사됨.

라) 추가로, 전체 21개 읍면동을 통틀어 '주문진읍'(90.2%)의 '본적있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경포동' 14명(46.7%)으로 조사됨. 낮은 비중의 지역이라도 마을 내 사각지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복지사업 추진 시 객관적 데이터, 공동체 활성화 수준 등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31〉 거주동네별 도움이 필요한 이웃 목격 여부

(N = 1,029)

구분	빈도(%)																					$\chi^2(p)$			
	주미동1리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간곡면	옥계면	사천면	연리면	이면지리	흥제동	천곡동	아전동	관1동	관2동	포남1동	포남2동	죽림동	송정동	내리동	강남동	정포동		경포동	배지리	계
번진였다	37	25	13	20	15	24	16	26	176	50	26	13	47	32	45	22	14	20	68	46	119	14	516	692	[거주동네별 36.785* (.012)
	90.2%	65.8%	59.1%	64.5%	78.9%	77.4%	66.7%	83.9%	74.3%	73.5%	76.5%	61.9%	65.3%	68.1%	66.2%	71.0%	73.7%	51.3%	61.8%	56.8%	69.2%	46.7%	65.2%	67.2%	
번진적었다	4	13	9	11	4	7	8	5	61	18	8	8	25	15	23	9	5	19	42	35	53	16	276	337	[읍면/동별] 6.874* (.009)
	9.8%	34.2%	40.9%	35.5%	21.1%	22.6%	33.3%	16.1%	25.7%	26.5%	23.5%	38.1%	34.7%	31.9%	33.8%	29.0%	26.3%	48.7%	38.2%	43.2%	30.8%	53.3%	34.8%	32.8%	
계	41	38	22	31	19	31	24	31	237	68	34	21	72	47	68	31	19	39	110	81	172	30	792	10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 < .05

마)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제로 도움을 준 유형으로는 ‘공공기관’ 277명(32.9%), ‘통·반장 및 이웃’ 155명(18.9%), ‘복지기관’ 148명(17.6%), ‘직접 도움’ 131명(15.5%),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함’ 110명(13.0%), ‘기타’ 18명(2.1%) 순으로 조사됨.

바)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함’ 비중이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사회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전달체계가 지속해서 확충되는 배경 속에서 돕고 싶더라도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업 수행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및 대상자 발굴 활동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사) 연령대별 1순위를 살펴보면 ‘20대’는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함’ 11명(45.8%), ‘30대’는 ‘공공기관’ 33명(37.5%), ‘40대’는 ‘공공기관’ 37명(42.5%), ‘50대’는 ‘공공기관’ 80명(36.9%), ‘60대’는 ‘공공기관’ 92명(33.2%), ‘70대 이상’은 공공기관 31명(20.7%)으로 조사되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특이사항으로는 ‘70대 이상’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체적으로 도움을 준 방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음.

아) 성별에 따른 도움 제공 유형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집단 내 비중은 다르더라도, 우선순위는 같은 것으로 나타남.

자) ‘공공기관’ 비중이 높은 이유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접근성이 높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쉬운 수단이었을 것으로 추측함. 민간 복지기관은 홍보 확대로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과 함께 공공기관과 업무 협력을 강화하여 유기적인 복지 욕구 대응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차) 다만, ‘사천면’(0.0%), ‘연곡면’(10.0%), ‘중앙동’(3.7%), ‘옥천동’(5.9%)과 같이 복지기관 도움 요청 비중이 낮은 지역은 홍보 확대와 더불어 복지기관 사업이 해당 지역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도 있겠음.

카) 지역에 따른 도움 제공 유형의 경우, ‘읍면지역’은 ‘공공기관’ 85명(37.8%), ‘직접도움’ 44명(19.6%), ‘복지기관’ 43명(19.1%), ‘통·반장 및 이웃’ 35명(15.6%),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함’ 15명(6.7%), ‘기타’ 3명(1.3%) 순으로 조사됨.

타) ‘동지역’은 ‘공공기관’ 192명(31.1%), ‘통·반장 및 이웃’ 124명(20.1%), ‘복지기관’ 105명(17.0%),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함’ 95명(15.4%), ‘직접도움’ 87명(14.1%), ‘기타’ 15명(2.0%) 순으로 조사되어,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도움을 준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파) 공공기관 도움 요청을 제외하고 비교하였을 때, 읍면지역은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비중이 컸고, 동지역은 통·장 및 이웃에 도움을 연계한 경우가 많았으며, 몰라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중도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하) 특이사항으로 '연곡면'(80.0%)의 '공공기관 도움 요청'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동'(18.5%)과 '교2동'(16.7%), '왕산면'(19.8%)은 공공기관 도움 요청이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남.

거) 중앙동(33.3%), 흥제동(29.8%), 옥천동(23.5%), 성덕동(19.4%), 강남동(16.9%)은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32〉 성별·연령대별 이웃에게 도움을 준 유형

(N = 681)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	케이스 중 %	20대 (n=19)	30대 (n=68)	40대 (n=67)	50대 (n=171)	60대 (n=225)	70대이상 (n=131)	남성 (n=450)	여성 (n=580)
전체	843	123.8	24	88	87	217	277	150	364	479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보건소 등에 도움 요청	277 32.9%	40.7	4 16.7%	33 37.5%	37 42.5%	80 36.9%	92 33.2%	31 20.7%	125 34.3%	152 31.7%
복지기관(복지관, 상담소 등)에 도움 요청	148 17.6%	21.7	1 4.2%	17 19.3%	15 17.2%	40 18.4%	47 17.0%	28 18.7%	68 18.7%	80 16.7%
통·반장 및 이웃에게 도움 요청	159 18.9%	23.3	5 20.8%	7 8.0%	13 14.9%	34 15.7%	70 25.3%	30 20.0%	70 19.2%	89 18.6%
직접 도움 제공	131 15.5%	19.2	2 8.3%	8 9.1%	7 8.0%	38 17.5%	47 17.0%	29 19.3%	53 14.6%	78 16.3%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함	110 13.0%	16.2	11 45.8%	23 26.1%	15 17.2%	20 9.2%	15 5.4%	26 17.3%	45 12.4%	65 13.6%
기타	18 2.1%	2.6	1 4.2%	0 0.0%	0 0.0%	5 2.3%	6 2.2%	6 4.0%	3 0.8%	15 3.1%

이웃에게 도움을 준 유형 기타응답

음식 나눔 / 마스크 배부 / 보일러, 연탄 / 청소, 상담 / 관심만 있었음 / 봉사 모임에서 단체로 / 안내 및 조언 / 집청소 / 몸이 불편해서 / 수급자 어르신 세탁 서비스 제공 / 주민센터 복지계 연결 / 봉사활동 / 대한적십자 강릉지구협의회에 결연 세대로 도움

〈표33〉 이웃에게 도움을 준 유형과 거주동네 다중반응 교차분석

(N = 681)

구분	전체		빈도(%)																						
	%	케이스 중 %	주민센터 n=37	성산면 n=25	왕산면 n=13	구정면 n=18	강동면 n=15	옥계면 n=24	사천면 n=15	연곡면 n=26	읍면지역 n=173	홍제동 n=49	중앙동 n=26	옥천동 n=13	교1동 n=45	교2동 n=32	포남1동 n=44	포남2동 n=21	초당동 n=14	송정동 n=20	내곡동 n=68	강남동 n=45	성덕동 n=117	경포동 n=14	동지역 n=508
전체	843	123.8	49	34	16	28	23	29	16	30	225	57	27	17	60	36	51	26	21	26	87	59	134	17	618
1	277	40.7	13	13	3	8	7	12	5	24	85	16	5	7	16	6	22	6	6	11	30	16	43	8	192
	32.9		26.5%	38.2%	18.8%	28.6%	30.4%	41.4%	31.3%	80.0%	37.8%	28.1%	18.5%	41.2%	26.7%	16.7%	43.1%	23.1%	28.6%	42.3%	34.5%	27.1%	32.1%	47.1%	31.1%
2	148	21.7	11	7	5	7	5	5	0	3	43	7	1	1	14	8	9	6	4	3	17	12	20	3	105
	17.6		22.4%	20.6%	31.3%	25.0%	21.7%	17.2%	0.0%	10.0%	19.1%	12.3%	3.7%	5.9%	23.3%	22.2%	17.6%	23.1%	19.0%	11.5%	19.5%	20.3%	14.9%	17.6%	17.0%
3	159	23.3	11	6	3	4	4	1	6	0	35	7	9	3	16	13	9	7	6	4	15	16	18	1	124
	18.9		22.4%	17.6%	18.8%	14.3%	17.4%	3.4%	37.5%	0.0%	15.6%	12.3%	33.3%	17.6%	26.7%	36.1%	17.6%	26.9%	28.6%	15.4%	17.2%	27.1%	13.4%	5.9%	20.1%
4	131	19.2	8	7	3	5	6	9	3	3	44	8	3	1	8	5	8	4	2	5	15	5	20	3	87
	15.5		16.3%	20.6%	18.8%	17.9%	26.1%	31.0%	18.8%	10.0%	19.6%	14.0%	11.1%	5.9%	13.3%	13.9%	15.7%	15.4%	9.5%	19.2%	17.2%	8.5%	14.9%	17.6%	14.1%
5	110	16.2	3	1	2	4	1	2	2	0	15	17	9	4	6	3	2	1	2	3	10	10	26	2	95
	13.0		6.1%	2.9%	12.5%	14.3%	4.3%	6.9%	12.5%	0.0%	6.7%	29.8%	33.3%	23.5%	10.0%	8.3%	3.9%	3.8%	9.5%	11.5%	11.5%	16.9%	19.4%	11.8%	15.4%
6	18	2.6	3	0	0	0	0	0	0	0	3	2	0	1	0	1	1	2	1	0	0	0	7	0	15
	2.1		6.1%	0.0%	0.0%	0.0%	0.0%	0.0%	0.0%	0.0%	1.3%	3.5%	0.0%	5.9%	0.0%	2.8%	2.0%	7.7%	4.8%	0.0%	0.0%	0.0%	5.2%	0.0%	2.4%

1.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보건소 등)에 도움 요청 / 2. 복지기관(복지관, 상담소 등)에 도움 요청 / 3. 통·반장 및 이웃에게 도움 요청 / 4. 직접 도움 제공 / 5.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함 / 6. 기타

8) 사각지대 이웃 감소를 위한 지역주민의 생각

가) 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통장의 정기적인 사각지대 발굴’ 313명(30.6%), ‘대상자 선별기준 완화’ 188명(18.4%), ‘홍보강화’ 181명(17.7%), ‘신청 절차 간소화’ 164명(16.0%), ‘복지사업 수 확대’ 149명(14.6%), ‘기타’ 29명(2.8%) 순으로 조사됨.

나) 연령대별 사각지대 이웃 감소 방안을 교차분석 한 경우, $\chi^2=156.348$, $p<.001$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각 집단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응답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 ‘신청 절차 간소화’ 32명(38.1%), 38명(27.9%), ‘40대~70대 이상’은 ‘이·통장의 정기적인 사각지대 발굴’ 31명(28.7%), 85명(38.1%), 90명(32.7%), 66명(33.3%)로 조사됨. 본 조사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40대 이상에서 이·통장의 정기적인 사각지대 발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측함.

다) 성별에 따른 사각지대 감소 방안 교차분석 또한, $\chi^2=15.626$, $p=0.008$ 로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복지사업 수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대상자 선별기준 완화’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홍보강화’, ‘이·통장의 정기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선택한 비중이 높았음. 단, 두 집단 모두 이·통장의 정기적인 사각지대 발굴 비중이 1순위로 나타남.

〈표34〉 성별 연령대별 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주민들의 생각 (N = 1,024)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성	여성
전체	1,024	84	136	108	223	275	198	447	577
홍보강화	181	10	26	19	37	49	40	74	107
	17.7	11.9%	19.1%	17.6%	16.6%	17.8%	20.2%	16.6%	18.5%
이·통장의 정기적인 사각지대 발굴	313	9	32	31	85	90	66	125	188
	30.6	10.7%	23.5%	28.7%	38.1%	32.7%	33.3%	28.0%	32.6%
복지사업 수 확대	149	29	18	10	28	32	32	79	70
	14.6	34.5%	13.2%	9.3%	12.6%	11.6%	16.2%	17.7%	12.1%
신청 절차 간소화	164	32	38	17	27	32	18	80	84
	16.0	38.1%	27.9%	15.7%	12.1%	11.6%	9.1%	17.9%	14.6%
대상자 선별기준 완화 (포괄적인 선정기준 적용)	188	4	20	29	43	68	24	83	105
	18.4	4.8%	14.7%	26.9%	19.3%	24.7%	12.1%	18.6%	18.2%
기타	29	0	2	2	3	4	18	6	23
	2.8	0.0%	1.5%	1.9%	1.3%	1.5%	9.1%	1.3%	4.0%
$\chi^2(p)$		156.348* ($<.001$)						15.626* (.008)	

*p < .05

이웃에게 도움을 준 유형 기타응답

시청 주도적 역할 / 모르겠다 / 복지 혜택 수혜자 미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로,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 / 급식 지원 / 지역주민 인적 네트워크 구성 / 이웃과의 소통

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욕구분석 결과

1)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설문결과 분석

가) 전체 응답자 1,045명 중 본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로 응답한 지역주민은 60명(5.7%)으로 조사됨.

※참고: 2022년 기준 본 복지관 개인 자원봉사자 36명, 단체 자원봉사자 25단체

나) 앞에서 복지관 이용서비스로 자원봉사를 선택한 지역주민이 136명인 것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의 응답률로 조사된 이유로는 자원봉사자 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지가 본조사 설문지와 별개로 배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취합 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겠음.

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0명(16.7%), '30대' 6명(10.0%), '40대' 7명(11.7%), '50대' 14명(23.3%), '60대' 18명(30.0%), '70대 이상' 5명(8.3%)으로 조사되었고, 성별로는 '남성' 22명(36.7%), '여성' 38명(63.3%)으로 조사됨.

〈표35〉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기본사항

(N = 1,045)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성	여성
전체	1,045	85	136	109	228	281	206	455	590
		8.1	13.0	10.4	21.8	26.9	19.7	43.5	56.5
자원봉사자O	60	10	6	7	14	18	5	22	38
	100	16.7	10.0	11.7	23.3	30.0	8.3	36.7	63.3
자원봉사자X	985	75	130	102	214	263	201	433	552
	100	7.6	13.2	10.4	21.7	26.7	20.4	44.0	56.0

라)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9명(48.3%),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11명(18.3%),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9명(15.0%), '자아실현을 위해' 8명(13.3%), '봉사활동 인증시간을 얻기 위해' 2명(3.3%), '기타' 1명(1.7%) 순으로 조사됨.

마) 따라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려는 이타적 동기 외에도 자원봉사자 개인의 내적, 외적 동기를 지속 강화하도록 사회복지사업을 구성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바) 자원봉사활동 독려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복지 및 봉사활동 정보제공' 27명(45.8%), '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10명(16.9%), '자원봉사자 휴식공간 조성' 9명(15.3%),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원데이클래스)' 7명(11.9%), '봉사자 격려를 위한 행사 진행' 5명(8.5%), '기타' 1명(1.7%) 순으로 나타남.

사) 선호하는 자원봉사활동 유형으로는 ‘취약계층 급식 및 반찬/부식지원’ 23명(39.0%), ‘재능기부 교육활동’ 11명(18.6%), ‘주거환경개선’ 6명(10.2%), ‘말벗(안부확인) 및 멘토링’ 6명(10.2%), ‘취약계층 이동지원 및 활동보조’ 5명(8.5%), ‘행사 및 캠페인 진행’ 4명(6.8%), ‘전문봉사(아·미용, 사진, 의료 등)’ 1명(1.7%), ‘마을방법 및 교통안전’ 2명(3.4%) ‘행정보조’ 1명(1.7%) 순으로 조사됨.

아) 취약계층 급식 및 반찬/부식지원 봉사활동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본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중 다수가 장수식당(노인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사업 운영지원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봄.

자) 급식 및 반찬/부식지원 외 분야를 살펴보면, 재능기부 교육활동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향후 본관 사업 진행 시 지역사회 내 재능기부자를 발굴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복지관 예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표36〉 자원봉사활동 관련 욕구

	자원봉사자 참여동기			선호 자원봉사활동 유형				
	내용	전체(%)		내용	전체(%)			
자원봉사자 참여동기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9 48.3	자원봉사 독려방안	자원봉사자 휴식공간 조성	9 15.3	선호 자원봉사활동 유형	취약계층 이동지원 및 활동보조	5 8.5
	자아실현을 위해	8 13.3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원데이클래스)	7 11.9		취약계층 급식 및 반찬/부식지원	23 39.0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11 18.3		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10 16.9		주거환경개선	6 10.2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9 15.0		정기적인 복지 및 봉사활동 정보제공	27 45.8		재능기부 교육활동	11 18.6
	봉사활동 인증 시간을 얻기 위해	2 3.3		봉사자 격려를 위한 행사 진행	5 8.5		말벗(안부확인) 및 멘토링	6 10.2
	기타	1 1.7		기타	1 1.7		행사 및 캠페인진행	4 6.8
	계	60 100.0		계	59 100.0		전문봉사(아·미용, 사진, 의료 등)	1 1.7
							마을방법 및 교통안전	2 3.4
				행정보조	1 1.7			
				계	59 100.0			

자원봉사 관련 기타응답

1. 참여동기: 나를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
2. 독려방안: 자원봉사 시수 확대

2)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 설문결과 분석

가) 전체 응답자 1,045명 중 본 복지관 후원자로 응답한 지역주민은 14명(1.3%)으로 조사됨. 2022년 기준 개인·단체 후원자가 94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조사의 후원자 응답률이 다소 낮아 후원자 집단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낮은 응답률의 원인으로는 정기후원 외 일회성 후원 집단이 포함되어 있어, 본 복지관의 조사 참여 유인 요소가 낮았다고 판단됨.

나) 후원자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응답자 14명 중 '20대' 2명, '30대' 2명, '40대' 5명, '50대' 1명, '60대' 4명으로 조사되었고, 성별은 '남성'은 9명, '여성'은 5명임.

〈표37〉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 기본사항 (N = 1,045)

구분	전체	연령 빈도(%)						성별 빈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성	여성
전체	1,045	85 8.1	136 13.0	109 10.4	228 21.8	281 26.9	206 19.7	455 43.5	590 56.5
후원자O	14	2 14.3	2 14.3	5 35.7	1 7.1	4 28.6	0 0	9 64.3	5 35.7
후원자X	1,031	83 8.1	134 13.0	104 10.0	227 22.0	277 26.9	206 20.0	446 43.3	585 56.7

다) 후원에 참여하는 동기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9명(64.3%), '자아실현을 위해' 3명(21.4%),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2명(14.3%) 순으로 조사됨.

라) 후원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정기적인 복지정보 제공' 8명(57.1%), '취미·여가 프로그램(원데이 클래스)' 6명(42.9%) 순으로 조사되어, 자원봉사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복지정보 제공이 후원 독려를 위한 1순위 요소로 파악됨.

〈표38〉 후원 관련 욕구1

후원욕구	내용	전체(%)	후원독려방안	내용	전체(%)
		연말 정산 혜택을 위해		0 0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9 64.3		정기적인 복지정보 제공	8 57.1
	자아실현을 위해	3 21.4		후원자 격려를 위한 행사 진행	0 0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2 14.3		기타	0 0
	기타	0 0		계	14 100.0
	계	14 100.0			

마) 후원금·품의 희망 사용 분야는 ‘노인’ 5명(35.7%), ‘아동·청소년’ 4명(28.6%), ‘미혼모·한부모’ 2명(14.3%), ‘청·장년’ 1명(7.1%), ‘조손가정’ 1명(7.1%), ‘기타’ 1명(7.1%) 순으로 조사됨. 비록, 응답률이 높지 않으나 본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던 노인, 아동·청소년 계층 외 다른 계층에 대한 후원자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바) 선호하는 후원금·품 사용보고 방식은 ‘문자메시지’ 8명(57.1%), ‘복지관 홈페이지’ 4명(28.6%), ‘이메일’ 1명(7.1%), ‘기타’ 1명(7.1%) 순으로 조사되어, 기존 사용 보고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39〉 후원 관련 욕구2

	희망 후원금·품 사용 분야			희망 후원금·품 사용보고 방식	
	내용	전체(%)		내용	전체(%)
희망 후원금·품 사용 분야	아동·청소년	4 28.6	희망 후원금·품 사용보고 방식	문자메시지	8 57.1
	청·장년	1 7.1		이메일	1 7.1
	노인	5 35.7		복지관 홈페이지	4 28.6
	장애인	0 0		우편	0 0
	미혼모·한부모	2 14.3		기타	1 7.1
	환경(지구)보존	0 0		계	14 100.0
	조손가정	1 7.1			
	기타	1 7.1			
	계	14 100.0			

6. 결론

가. 요약 및 제언

1) 지역주민 복지관 인식 및 복지욕구 현황

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정체성 확장을 위해 지역 내 인지도 확대 및 복지사업의 다양성 증진

- (1) 본 복지관의 역할(정체성)로 지역주민은 전통적인 복지관의 역할(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관련하여, 본 복지관 인식 및 이용 경험 분석 결과, 연령층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동지역에 살고 있을수록 복지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고령자가 많은 이유는 본 복지관의 서비스가 강릉시 및 단지 내 지역주민의 인구 특성에 따라 노인 연령층의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며, 종합복지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정체성을 확장하기 위해 사업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 다만, 동지역에 살고 있을수록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복지관의 위치적 특성(입암 3단지 내 위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읍면지역 거주민들은 본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 다소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대해서는 지역밀착형 복지사업을 후술함.
- (3) 기존의 특정 복지 욕구가 높은 계층의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두텁고, 다층적인 복지서비스 구성은 사업의 한 방향성으로 볼 수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한정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여 새로운 사각지대를 예방 및 해결하고,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욕구 및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 다양성 확보가 중요 과제라 할 수 있음.
※이용 불편사항으로도 홍보 및 프로그램 다양성 확대 욕구 확인
- (4) 먼저, 연령별·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사업유형과 홍보매체(캠페인, 기관연계, 리플렛 등) 및 복지관 이용 이유를 분석하여 지역 내 복지관 인지도를 확대하고, 조사활동 외 지역대학(사회봉사단, 사회복지학과 등)과의 교류 확대, 지역별 간담회 및 사업발표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에 적합한 복지사업을 구성해야 함.
- (5) 또한, 기존 공적전달체계(주민센터)의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마을 문제를 가장 유심히 파악하고 있는 이·통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의 교류도 점차 확대함으로써 계층별, 지역별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논의해야 함.
- (6)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한 집단을 파악해보면, '남성', '청·장년', '아동·청소년'이며, 욕구 및 문제 파악을 바탕으로 정기 사업 편성이 필요할 것을 보임.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2022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술함.

나) 사업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연령대별 복지지원 및 복지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맞춤형 대응

- (1) 복지지원 선호도의 경우 전체 평균으로 보면 보건의료지원, 상담 및 심리지원, 취업지원, 주거개선 및 지원, 돌봄 및 양육지원, 식사지원, 세탁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복지프로그램은 문화·여가프로그램,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학습지원·자기계발, 자격증 취득, 디지털교육, 요리교실, 가족교육 순으로 조사됨.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인 점 고려했을 때, 1~2순위 비중 외 3순위 이하 비중의 변동 중 주요사항 위주 기재

- (2) 한편, 연령대별로 분석했을 때 20대의 경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이 많은 관계로 취업 지원과 자격증 취득 욕구 비중이 높았음. 다만, 식사 지원 욕구도 60대 이상 외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3순위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20대 청년들의 균형있는 식사 해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30대도 취업지원 비중이 복지지원 유형에서는 가장 높았으나, 복지프로그램 영역에서는 20대와 달리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음. 이후 모든 연령대(40대 제외)에서 복지 프로그램 영역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주요 비중으로 선택함. 반면, 학습지원 및 자기 계발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점차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관내 공간 부족으로 지하 개보수 등의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그러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비중은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교육의 경우 30대까지는 집단 내 7~8순위 욕구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부터는 4~5순위로 집단 내 비중이 높아짐.

- (5) 40대는 취업지원, 식사, 세탁지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복지지원 욕구가 균형있게 분포되었고, 50대 이상부터는 보건의료지원 욕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50대 특이사항으로 취업지원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데, 고령층 진입 전 재취업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비중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 (6) 60대는 50대의 복지지원 욕구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식사·세탁·돌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경향임. 70대 이상 집단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선명하게 식사 및 세탁지원 비중이 더 커짐.

- (7) 한편, 각 연령대에 적합한 복지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희망 이용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음. 20대는 평일 야간(18~20시), 3~50대는 주말(토요일), 60대 이상은 평일(오전 및 오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관련 사업을 근무 외 시간대에 편성할 경우 초과수당 등 사업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비교적 참여 제약이 적은 온택트, 비대면 복지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향후 지속 요구될 것으로 보임.

다) 복지관 위치의 물리적 한계를 기회로 … 지역밀착형 복지사업 추진

- (1) 복지관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 교통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입암3단지 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다소 낮은 상황임. 지역 범위가 비교적 넓은 강릉시에서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21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형평성 있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에 따른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
- (2) 기초적으로 노선 확대, 교통약자 대중교통 확충, 복지관 위치 이전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변화도 직접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최근 '찾아가는', '통합돌봄', '지역밀착형'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본 복지관도 홍제동 미디어촌 5단지 분소, 강남동 마을관리소 등 지역 내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3) 지역 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낙인감, 적대감 등을 감소하고,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더불어, 지역주민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고, 공동체성 회복의 거점이 되면서 다양한 마을 문제를 '연결된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 앞으로는 지역사회 내 사업전파를 위해 지역밀착형 복지의 효과성을 알리고, 추가 공간조성 및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에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라) 초등자녀는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중·고등학생 자녀는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 균형있는 아동·청소년 성장을 위한 통합적인 복지사업 구성

- (1)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은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이 초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생각한 반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은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로 응답함. 보호자가 판단하였을 때 필요한 복지서비스인 관계로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 자료수집이 필요하겠으나, 대체로 응답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대별 주요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로 판단됨.
- (2) 다만, 아동·청소년기의 균형있고,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특정 영역만 포괄하는 복지서비스보다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기 위한 복지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음. 신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지원과 체육활동,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2차 성장에 따른 또래관계와 자아정체성 확립 및 학습 능력이 중요해지는 중·고등학생은 학습지원, 진로탐색, 심리지원이 높게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업 구성이 필요하겠음.

마) 동네별 사회복지문제 중요도 인식 수준 근거로 '마을관리소' 등 마을 중심의 복지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 활용

- (1) 본 조사에서 파악한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마을 내 복지문제 중요도는 실제 마을 내 발생 여부와 빈도를 알 수 없으나 전체 지역주민 및 각 마을별 복지사업 추진 시 의제 설정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예를 들어, 아웃리치의 방향성 설정, 주요 정보 제공자 인터뷰 내용 설정, 간담회 의제 설정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참여자 개인의 의견을 묻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2)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돌봄사각지대' 문제에 가장 많은 공감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고립가구', '소득지원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주요 사회복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기사항으로 직접적인 경제 문제보다 '관계' 기반의 사회적 문제에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지역사회 개입 시 '관계강화, 회복' 등 방향으로 주제 의식을 가지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3) 또한, 비대면 전환에 따른 정보 격차 심화는 지저분한 골목 환경, 가족·이웃 갈등, 불안정한 주거환경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겪을 수 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비대면 환경을 접하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디지털 역량이 낮은 계층의 어려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임. 정기적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더불어 상시로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고, 도와줄 지역 이웃, 봉사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음.

바) ①주민교류(나눔, 동아리 등), ②주민교육, ③마을문제 해결사업 구성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성

- (1)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역할로 이웃과의 교류 기회 제공이 중요한 요소로 확인됨(나눔 기회 조성, 함께할 활동 제안)됨.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이웃과 나눔 기회 조성은 전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중이었으나, 2~30대는 이웃과 함께할 장소와 비용지원 비중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아, 직접적인 교류 기회 제공보다 간접적인 지원 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2) 마을공동체 교육의 경우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선호 비중이 높아 추후 지역조직화 사업 추진 시 청년 집단 대상 마을공동체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도 효과적인 주민조직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사한 맥락에서 50대 집단의 참여를 통한 지역 현안 탐색 및 해결 사업도 고려할 수 있겠음.
- (3) 다만, 실제 주민복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2~30대 연령대에서 참여 희망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활동에 관심있는 청년 집단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마을공동체(지역조직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사업 참여 욕구가 높은 동지역(특히, 교1동, 포남동, 초당동, 강남동, 중앙동, 홍제동)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음.

- (4) 전술한 바와 실제 선호 활동 유형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단순히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동아리, 행사, 공간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적정 수준의 교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 주민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마을문제, 공동체 활동에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층적으로 꾸릴 필요가 있음.

사) 주민과 함께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 마련

- (1) 응답자 중 마을에 거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본 경우가 6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공공기관, 이웃(통장), 복지기관 등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한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나, 지역사회 내 주민 관계망이 비교적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추가로, 이러한 관계망을 더 체계화 하는 방안으로써 세 가지 주체가 통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기회)을 마련하여 서비스 개입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것으로 판단됨.
- (2) 다만, 방법을 몰라서 돕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13.0%로 조사됨에 따라, 본 조사에 주로 참여한 집단(통장,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봉사자 등) 구성을 고려했을 때 도움 제공 방식과 함께 도움 필요 여부를 구분하는 것에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3) 지역사회에 다양한 복지 전달체계가 확충되어 오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돕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공급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아웃리치, 주요정보 제공자 인터뷰 등)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음.
- (4) 특히, 본 복지관과 같은 민간복지영역 복지시설의 경우 복지기관 도움 비중이 낮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자생단체 협력 및 민관협력으로 기관(단체) 간 업무 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지역사회 개입이 요구되겠음.
- (5)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고립, 소외)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써 이·통장과 같은 지역 내 활동가들과 직접적인 사각지대 발굴(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대상자 선별 기준 완화 등 민간 복지 사업의 범위도 확장해 나가야 함.

※실효성있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례 위주의 주민교육 등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2)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욕구분석 결과

가) 자원봉사자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봉사활동 분야 개발

- (1) 자원봉사자의 봉사 참여 동기 분석 결과, 외적 동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와 같이 내적 동기에 의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됨.
- (2) 이러한 경향은 활동 독려 방안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기적인 복지 및 봉사 활동 정보제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임. 외부의 강화 요인보다 내적 동기에 의한 봉사 활동 참여 과정에서 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직접적인 봉사 참여를 위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음.
- (3) 다만, 기존 자원봉사자원은 장수식당 및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봉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원봉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적절한 봉사활동 정보제공 창구가 부족하여 개인 및 자원봉사단체별 자원봉사활동 기회가 균형 있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음.
- (4)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사업 구성 시 식당 및 부식배달과 같이 기존의 자원봉사 유형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원봉사활동 분야의 개발을 함께 고민하여 균형있게 자원 봉사 기회를 마련하고, 신규 자원봉사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령대별 사회참여 욕구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조사 결과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5) 더불어, 재능기부 교육활동이 자원봉사 욕구 영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눔 문화 기반의 예산 효율화 및 봉사자 본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하도록 봉사활동 기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음.

나) 자원봉사자·후원자의 지속 참여 독려를 위한 동기 강화 방안 다양화

- (1) 내적, 이타적 동기가 우선이 되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집단일지라도,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다양한 동기 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실제로 4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요소로써 이웃을 돌보는 봉사자에 대한 지지·격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 자원봉사자의 경우 역량강화 교육, 자원봉사자 휴식공간을 조성 및 보장하여야 하고,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취미·여가 지지격려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참여 동기 및 효능감을 향상해야함.
- (3) 다만, 자원봉사자 휴식공간 조성은 복지관 본관의 물리적 한계로 새로운 공간을 짧은 시간에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 1층 돌봄카페, 보람실 옆 간이 휴게공간 등이 자원봉사자들이 휴식 및 활동 준비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기존 장소를 정돈하고, 휴식 공간으로써 사용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차년도 사업 계획 방향성

〈표40〉 차년도 사업계획 방향성

주제	차년도 사업 방향성	관련 주요 사업
<p>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정체성 확장을 위해 지역 내 인지도 확대 및 복지사업의 다양성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집단(연령대, 성별)이 복지관을 인식하고, 보편적으로 종합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인지도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 집단의 특성에 맞는 홍보매체 활용(캠페인, 기관 연계, 리플렛 보완, 홈페이지 개편 등)하고, 지역 사회 소통 기회 추가 마련(간담회, 사업발표회, 인터뷰, 기관 교류 등) ▪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유관기관 업무 교류 및 조정을 통해 업무의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인해 파편화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해 나가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가요제(신규) ▪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 통합돌봄 실무자모임 ▪ 홍보사업(홈페이지 개편 등)
<p>연령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정체성(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사업 운영 ▪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사업 편성 및 운영 ▪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표적집단(연령대)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근거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서비스 ▪ 지역사회보호사업 ▪ 다도프로그램(신규) “다(茶)향 다(茶)색” ▪ 한국화교실(신규) “먹그림” ▪ 난타프로그램(신규) “울림” ▪ 에코브릿지 ▪ 화사한인생 ▪ 우리동네 뜨개방 ▪ 마카모예(미술, 노래) ▪ 디지털 탐험대 ▪ 성인문해학교
<p>초등자녀는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중·고등학생 자녀는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 균형있는 아동·청소년 성장을 위한 통합적인 복지사업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별 주요 과업 수행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진행하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복지사업 구상 ▪ 보호자의 의견이 반영된 조사 결과이므로, 개별 아동·청소년 사업 진행 전 별도 자료 수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신규) “Play Mate” ▪ 여름방학 프로그램 “방학을 부탁해” ▪ 후원 연계 등

〈표40〉 차년도 사업계획 방향성

주제	차년도 사업 방향성	관련 주요 사업
<p>복지관 위치의 물리적 한계를 기회로 ... 지역밀착형 복지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위치에 따른 물리적 한계를 마을로 '찾아가는' 형식의 마을 밀착형 복지사업으로 극복 (분소, 마을관리소,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 ▪ 기존 복지관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하고, 이웃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 추진 	
<p>동네별 사회복지문제 중요도 인식 수준 '마을관리소' 등 마을 중심 복지사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사각지대 등 강릉시 지역주민이 주로 인식 및 공감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동체 사업 추진 ▪ 비대면 전환에 따른 정보 격차 심화도 코로나19 등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주요 사회복지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상시로 관련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마을활동가(자원봉사자)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강남동 마을관리소 ▪ 포남2동 마을관리소 (신규) ▪ 주민동아리 활동지원
<p>주민교류-주민교육-마을문제 구성으로 체계적인 주민조직화(마을공동체)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행사 등 마을 내 단순 주민교류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주민교육을 통해 공동체 강화 ▪ 마을문제 탐색 및 해결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 ▪ 20대 청년(대학생)의 공동체 교육을 바탕으로 해당 연령대의 재능기부 형식의 마을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p>주민과 함께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민간 차원에서 존재하는 주민 관계망을 조직화하여 공공기관, 이웃(통장), 복지기관 등 여러 주체가 통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서비스 개입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할 필요 ▪ 특히, 마을 내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사업 필요 ▪ 정보 부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돕지 못하는 상황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아웃리치, 인터뷰 등) 전개 ▪ 지역별 복지관 이용률 및 도움 요청 비중이 낮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 ▪ 한편,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대상자 선별 기준 완화 등 민간 복지 사업의 범위도 확장 ▪ 강릉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재난(산불, 태풍 등) 발생 시 마을의 회복탄력성을 기반으로 재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례회의 ▪ 우리동네 1촌 돌봄단 ▪ 재난사회복지사업(신규) ▪ 통합 돌봄 실무자 모임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표40〉 차년도 사업계획 방향성

주제	차년도 사업 방향성	관련 주요 사업
<p>자원봉사자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봉사활동 분야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및 후원 독려 방안으로 ‘정기적인 복지 및 봉사활동 정보 제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취미·여가 원데이 클래스 운영 등에 대한 욕구도 확인 ▪ 40대 이하 연령대의 경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요소로써 이웃을 돌보는 봉사자에 대한 지지·격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 따라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대상으로 홈페이지, SNS, 문자, 후원캠페인 등의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봉사 정보를 공유하고, 봉사 참여를 촉진하는 지지 격려 프로그램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지지격려 프로그램 ▪ 송년행사 입암의 이밤 ▪ 후원캠페인(신규)
<p>자원봉사자·후원자의 지속 참여 독려를 위한 동기 강화 방안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봉사자가 마을 내 다양한 영역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부식배달 외 추가 봉사활동 분야 개발(마을공동체 사업, 재능기부 등) ▪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전, 후 정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휴식 공간 조성 및 보장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처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발행인 관장 김하남(유엄스님)

발행일 2022. 11.

편집인 사회복지사 전근홍

주소 강릉시 강변로 510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대표전화 033-653-6375